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허범도  
편집주간 이상룡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제작 사인텔 Tel. (051)245-2337

# “청마는 떠나가도 ‘웅비도약’ 용마는 건재하다!”

## ‘2014 용마의 밤’ 대성황, 경남중 대강당 열기 가득 메워 용마동문 지도력 건재 확인, “도전과 비전의 새해 맞자!”



찾은 참사로 우울했던 갑오년을 보내며 500여 용마동문들은 용마의 지도적 위상은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새해에는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며 건배했다.

용마가족들의 대동 한마당 ‘2014 용마의 밤’이 지난 12월 11일, 모교인 경남중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다소 쌀쌀한 저녁 날씨에도 불구하고 2년을 기다린 동문들은 일찌감치 기수별로 자리를 잡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특히 모교 신축교사를 처음 방문하는 시니어 동문들은 깔끔하고 반듯하게 정비된 각종 공간과 시설들을 둘러보며 옛 시절을 추억하기도 했다. 행사장인 대강당이 본관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모교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개회식에서 허범도 회장은 “2014년은 기상 높은 청마의 해였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많은 동문들이 앞찬 성과를 거둔 보람찬 한해였다”며 용마가족들의 힘찬 도약을 자축했다. 허범도 회장은 “새해도 도전과 비전으로 가득찬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하고 “모교를

사랑하고 동창회를 아끼는 각별한 마음으로 대성황을 이루어준 참석 동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용흠 고문도 축사에서 “용마동문들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두루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빛어낸 각종 우환과 국내외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마는 건재했다”며 기쁨을 토했다. 이용흠 고문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2년 간 동창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허범도 회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자”고 제의하고, 차기 집행부에도 전폭적인 성원과 후원을 아끼지 말자고 강조했다.

오거돈 고문은 “올 한해 동안 보내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잊지 않겠다”고 밝히고 “새로운 날들이 다가온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범도 회장은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면서 28회 동기회 등 거역기부 동문들에게 기금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개막행사 마지막 순서인 축하공연에서 본부용마합창단은 이날 행사를 위해 갈고 다듬은 ‘하얀 손수건’, ‘축제의 노래’, ‘우리는’을 열창해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2014 용마의 밤’ 열기를 더욱 달구었다. <관련 기사 6, 7면>

하는 까닭은 하 당선자가 변호사들의 밑바닥 여론을 모아 사법개혁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 남해의 농가에서 태어난 하 동문은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시키겠다”고 밝혀 대한변협이 대법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변협 총무이사, 공보이사를 거쳐 2007년 서울지방법원 호사회장에 당선되었던 하창우 동문은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해 큰 호응을 받았다. 2월 23일 제48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취임한다.

## 하창우 동문, 변협회장 당선 “국민 신뢰 얻는 변협 만들겠다”



하창우 새 변협회장은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하고 존치할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

하창우(27회) 동문이 전국 1만5천여 변호사들의 수장인 대한변협사 협회 제48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하 변호사는 지난 12일 협회장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의 35.6%인 3,214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었다. 변협회장선거는 유효투표의 1/3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하 동문은 당선이 확정된 뒤 제1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하 동문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5기)을 거친 뒤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판검사 등 화려한 전관 출신 후보들을 꺾고 ‘재야 하창우’의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를 법조계는 물론 정관계까지 주목

하는 까닭은 하 당선자가 변호사들의 밑바닥 여론을 모아 사법개혁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 남해의 농가에서 태어난 하 동문은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시키겠다”고 밝혀 대한변협이 대법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변협 총무이사, 공보이사를 거쳐 2007년 서울지방법원 호사회장에 당선되었던 하창우 동문은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해 큰 호응을 받았다. 2월 23일 제48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취임한다.

## 28회, 발전기금 5천만원 경고 장학금 1,500만원 지급도 약속

28회 동기회가 모교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쾌척했다. 또한 2015년 새해에는 경남고 재학생들에게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8회 동기회의 ‘졸업4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만수)’는 홈커밍 행사를 준비하면서 “모교와 후배들을 위

## “편히 아들 만날 수 있겠다”

### 양현종 선수 ‘무쇠팔 최동원상 1호’



최 동원 동문의 모친 김정자 여사(사진 맨 오른쪽)는 “동원을 만나면 오늘 이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겠다”고 말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무쇠팔 최동원상’의 첫 영광은 기아 타이거즈에 이스 양현종 선수에게 돌아갔다.

최동원기념사업회(이사장 권기우)는 11월 11일 부산은행 신사옥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갖고 양현종 선수에게 영예의 트로피와 상금 2천만원을 수여했다. 양현종 수상자는 “영예로운 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이다. 최동원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 선수는 시상식에 앞서 사직야구장 앞 최동원 동문 동상에 헌화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 동문의 모친 김정자 여사는 “3년 전 동원을 잃고 실의에 빠졌을 때, 부산 시민과 전국 야구팬들이 아들을 기억해 주어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하고 “이제 동원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동원을 만나면 오늘 이 생생한 모습을 꼭 전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전 롯데감독 박영길(14회) 동문과 어우홍 전 모교 감독은 최동원 동문과의 사연과 추억 그리고 불멸의 투혼과 탁월한 기량을 분석, 소개했다. 맞수이면서도 최 동문의 임종 직전을 지켜본 이만수 전 SK감독은 “친구 못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야회 이길상(6회) 고문과 허구연(24회) MBC해설위원, 이종운(39회) 신인 롯데감독, 박국제(24회) 서구청장, 이대호(55회), 송성준(60회) 동문, 그리고 모교 서강태(30회) 교장과 야구단 일동 등 용마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불세출의 영웅’의 빛나는 부활을 지켜보았다. <관련 기사 9면>

해 뜻 있는 일을 해 보자”고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거액을 회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홈커밍 행사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마련한 것이어서 동문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28회는 홈커밍 행사 때 모교 경남고와 경남중을 방문하고 운영비로 각각 300만원을 기부했다. <관련기사 13면>



# “십시일반! 100억원 완수하자!”

## 경발위 공식 출범 5주년, 목표액 미달된 75억원 모금



구본능 장학회 이사장      전재호 경발위 이사장

경남중고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5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9년 10월 22일, 경발위 회칙이 시행됨으로써 공식 출범한 경발위는 그동안 75억원(본부동창회:12억288만원, 재경동창회:62억9천884만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하고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재경동창회는 10월 17일 팔레스호텔에서 2014년도 제3차 경발위 이사회를 열고 모금 목표액 100억원 달성을 위해 전방위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임우근(19회) 위원장은 “대입 성적이 하루아침에 급등하는 것이 아니므로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경남중고 저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징후를 보여 기쁘다”면서 “후임 위원장 전

재호 회장이 발군의 경륜으로 목표액 1백억원 달성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초대위원장 배재욱(17회) 재경장학회 이사장은 “수산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우근 이사장의 노고가 컸다”고 치하하고 “물심양면으로 장학회 사업에 꾸준히 기여해 온 구본능(21회) KBO 총재가 재경장학회 이사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4면>

강실근(23회) 운영본부장은 부산고의 조기 목표 달성 사례를 거론하며 “금방 모은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75억여 원을 겨우 모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큰돈을 쾌척한 동문들에게 기대어 책임 의식을 털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강남서초모임 회장 구본홍(20회) 동문은 “재학생들에게 모교가 자랑스러운 학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덕행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구 동문은 “목표액을 채우기도 전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모금활동이 다 끝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업집행을 인내할 필요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경경발위는 발전기금모금 지로용지를 회보와 함께 발송할 계획인데 십시일반의 취지로 ‘기금 한번 더 내기’, ‘개미군단 구축’ 등 전방위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부동창회와 분리 관리되는 기금의 활용 방안 논의 등 처리해야 할 과제 해결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모금에 동참한 뜻있는 동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재경장학회는 하나대투증권과 기부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대투 기부 서비스’는 동문뿐만 아니라 기부문화에 관심이 많은 동문들의 가족, 지인 등이 개인 또는 법인명으로 하나대투증권의 펀드, 채권, 주식, ELS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타사에 있는 상품을 이관하면, 증권사 수익의 20~30%를 가입자 또는 이관자 명의로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 ‘용마’, 부산합창제 참가 부산지역 첫 동문합창제 준비중

본부 용마합창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공식 합창제에 참가했다.

합창단은 10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 음악축제인 제27회 부산합창제에 참가해 <히브리 노예의 합창> <우리는>을 연주했다. 22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합창제에는 심사를 거친 30개 팀이 참가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연습활동을 진행하는 용마합창단은 ‘2014 용마의 밤’에서 축하 공연을 가졌으며, 오는 3월 동창회 정기총회에서도 공연을 펼친다. 한편 용마합창단이 주도하는 고교동문합창제 공연장 대관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12월로 미루어졌다. 부산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고교동문합창제에는 용마합창단을 포함해 경남여고, 부산여고, 남성여고, 동래여고 동문합창단이 참여한다.

## 경남중, 경발위에 지원 요청 미확보 학력향상 운영비 1천7백만원

경남중 이요섭 교장이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경발위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요섭 교장은 서울에서 열린 경발위 이사회에 참석, 2012년부터 부산시교육청 공모에 의해 지원받아 온 창의경영학교와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금(연간 8천만원, 총 2억4천만원)이 종료됨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교장은 “최악한 부산시 구도심의 열악한 지역 특성상 생활지도를 비롯한 여러 과

제가 많지만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부교육청 관내 34개교 중 28위로 저조한 평가를 받는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우근 경발위 이사장은 “경발위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재를 털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중에서 요청한 금액은 소요 예산 2,160만원 가운데, 서구청이 지원할 4백만원 외에, 1천7백6십만원이다.

## 60년대 경중 악보 모교 역사관 기증

### 故 한원진 동문 유품, 희귀 역사자료 평가돼

동창회보(제403호)가 보도한 1960년대 경남중 합창반 악보집이 모교 역사관에 기증, 전시되었다.

당시 합창반을 지도한 이지구 은사와 악보집을 관리해 온 김지호(18회) 동문은 지난 11월 4일 모교 교장실에서 이요섭(27회) 교장에게 악보집을 기증했다. 이요섭 교장은 “보가 드문 귀한 자료를 간수하여 경중 역사관에 영구 전시될 수 있게 해 주신 고한원진 선배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용마음악의 전통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이자 교육사적으로도 귀중한 역사 유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증된 악보집은 ‘경중합창반 용’이라고 등사(謄寫)한 요한 스트라우



경남중 합창부 60년대 악보가 모교에 기증되었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대표도 참석했다.

스의 <푸른 도나우>를 비롯해서 60년대 초의 합창반 악보와 교회 성가대용 악보들이 대량으로 수록돼 있다. 한원진(18회) 동문은 투병중에 장형석(18회, 재미) 동민에게 악보집을 전하면서 “지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18회 동문들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모교 역사관에 기증하기에 이른 것이다.

## 경중 난타팀 후원회 태동

### 악기 5개 조부터 지원하기로

‘용마음악의 밤’에 깜찍하게 첫선을 보인 경남중 난타팀을 후원할 모임이 결성된다.

서울용마합창단 전 단장인 김지호(18회) 동문은 11월 4일 ‘경남중합창부 악보 기증식’이 끝난 뒤 모교 관계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이요섭 교장으로부터 난타팀 운영 현황에 대해 듣고 후배들의 음악활동을 지원할 후원회 결성을 제안했다.

이날 모임에서 이요섭 교장은 난타팀 가입을 지원하는 후배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사용할 악기가 부족하다고 밝힘에 따라 동문들은 우선 악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김지호 동문을 포함해 이종순(18회) 서울용마합창단장, 오재동(18회) 동문, 구자웅(24회) 동문 그리고 서울용마합창단이 각각 1조씩(7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지호 동문의 부인 전문옥 여사도 모교 난타팀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내놓았다.

## 모교발전기금 내신 동문(본부)

[2014년 9월26일~2014년 12월31일]

배서호(20회)	2,000,000
강봉기(22회)	1,000,000
노세현(22회)	800,000 (누계:2,200,000원)
박상호(26회)	500,000 (누계:5,500,000원)
구영소(28회)	4,000,000 (누계:5,000,000원)
김관세(28회)	1,000,000
김기태(28회)	3,000,000
김만중(28회)	3,000,000
김명영(28회)	1,000,000 (누계:2,000,000원)
김상정(28회)	1,000,000
김용석(28회)	1,000,000
김정유(28회)	2,000,000
김종섭(28회)	1,000,000
김종성(28회)	2,500,000
김준배(28회)	1,000,000
김준연(28회)	1,000,000 (누계:2,000,000원)
김형진(28회)	1,500,000 (누계:2,500,000원)
노영현(28회)	1,000,000 (누계:3,000,000원)
박영규(28회)	1,000,000
백영호(28회)	1,000,000
서영대(28회)	1,500,000
엄재홍(28회)	2,000,000
옥상곤(28회)	1,000,000 (누계:2,000,000원)
옥준원(28회)	1,000,000
윤경섭(28회)	1,000,000 (누계:2,000,000원)
이경포(28회)	2,000,000
이만수(28회)	2,000,000
이만재(28회)	1,000,000
이승하(28회)	1,000,000
이원용(28회)	1,000,000
이원철(28회)	1,000,000 (누계:4,000,000원)
정성목(28회)	2,000,000
정영주(28회)	500,000
최강호(28회)	5,000,000
허영철(28회)	2,000,000
소계:54,300,000원	
누계:1,202,880,000원	



# “부활하는 용마음악, 이태석과 함께”

## 모교 첫 추모음악회 가져, 교외 공연 · 정례화 구상



합창부와 문예반 후배들이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를 마련해 나눔과 봉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시종일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추모음악회는 ‘스마일 톤즈’ 회원 15명의 화음으로 장식된 존 레논의 ‘Imagine’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음악회를 관람한 모교 교사들은 한결같이 “오늘처럼 차분하고 정중한 관람 태도는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며 후배들의 선배 추모 자세를 치하했다.

한편 모교 당국은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를 확대,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마다 교외 연주장에서 일반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이다. 이는 이태석 동문 추모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모교 합창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故 이태석(35회) 동문이 용마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모교 재학생 후배들은 지난 11월20일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생가복원 사업이 완료되면서 추모 열기가 더욱 고조됨에 따라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음악회였다.

이날 음악회는 남미 가톨릭 사제들의 선교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 <미션>의 ‘Nella Fantasia’로 시작되었다. 동아리 ‘스마일 톤즈’의 배성준, 조민성 군이 이원빈 군의 반주로 열창했다. 이어 이태석 동문이 모교 재학 시절에 작곡한 ‘묵상’을 이상훈 군이 잔잔한 기타 반주로 불러 추모 열기를 달구었다.

이날 음악회에서 서강대 모교 교장은 이태석 동문의 애창곡 ‘사랑해’를 직접 불러 주목을 끌었다. 또한 이원성 군은 ‘이태석 신부님께 보내는 편지’를, 변승환 군은 ‘한 사내’라는 자작시를 낭송했다. 이들 시는 교내백일장에서 우수작품으로 입상한 시들이었다.

음악담당 김영미 교사는 “지난 6월, 용마음악의 밤 행사를 치른 이후로 합창반원들이 매우 적극적이고 협조적”이라고 말하고 “경남고가 지닌 음악적 전통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용마음악의 밤’이 부산에서 격년제로 열기로 한 것이 뜻밖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

음악시간에 오디션을 거쳐 부활 2기 합창반원 44명을 선발했다고 밝힌 김영미 교사는 “2기 팀은 1기보다 기량이 훨씬 뛰어났다. 전통의 힘이 이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그런데 선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용마음악의 밤’이 격년제로 열리게 되면 어떤 기수는 공연에 참여할 수 없어 전통의 승계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 추모음악회로 전통을 이어갈까 생각한다. 교장 선생님이 더 적극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영미 교사는 남성합창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모교 합창반은 겨울방학 중에도 하루 두 차례 강행군 연습을 펼치고 있다. 바로 이태석 추모음악회를 대비한 연습이다. 이태석 동문이 용마음악의 또 다른 아이콘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양승봉 씨, 이태석봉사상 수상

### 선종 5주기 맞아 추모행사 잇달아



양승봉 세계로병원 외과 과장은 네팔에서 15년간 의료봉사를 하면서 네팔에 의료보급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네팔에서 15년 간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세계로병원 외과과장 양승봉 씨가 제4회 이태석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부산고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양 과장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네팔 탄젠병원과 파탄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고, 의료보험제도를 도입을 주도했다. 네팔 병원들에 내시경, 복강경 의료기기를 공급했고 파탄의 과대학 설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양 과장은 2013년에는 고령제 환자들을 위해 베트남으로 자리를 옮겨, 심장병 환자 수술지원 200명, 악안면 기형수술 100명, 사랑의 집짓기 100여 채 등 사회,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1월15일, 이태석 동문 선종 5주기를 맞아 추모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이태석신부참사량실천연합회 일반 시민들도 포함된 참배단과 전남 담양에 있는 이 동문의 묘소를 참배하고, 송도성당 등지에서는 추모미사가 봉행된다.

연합회는 5주기를 기념하여 새해부터 매달 생가 주변에서 ‘작은 나눔 속 사랑 나눔’ 추모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는 글과 음악 등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받아 진행된다. 또한 5월에는 두 번째 ‘울지마 톤즈 참사랑음악제’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울지마 톤즈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동문이 졸업한 인제대 의대는 오는 6월 이 동문

유품 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인제대는 의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태석 기념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또한 부산 서구청에 따르면, 협성문화재단이사장 박귀순이 남부민동 생가에 이태석 동문 동상 건립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고야구부, 신입생 환영회

### 16명 선발, 학부모도 장기자랑



경남고 야구부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가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렸다.

경고 야구부 2015학년도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 12월3일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열렸다. 서강대 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경야회와 야구부 후원 동문, 이환용 부장과 전광열 감독 및 코칭 스태프 등 선수단 전원이 참석한 환영회에서 선배 선수들은 후배 신입생 16명에게 일일이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용마가족이 된 것을 축하했다.

서 교장은 “새해에는 기필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하여 선배들의 영광된 전통에 보답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수단은 물론 선수들의 부모들도 소개되어 박수를 받았다. 만찬을 끝낸 환영식은 학년별, 개인별, 단체별 장기자랑도 펼쳐 열기를 돋우었는데, 학부모들도 숨은 장기를 공개해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 문택상 재경 고문 별세



동창회의 큰 기둥인 문택상(4회) 재경동창회 고문이 지난 11월14일 향년 81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은 지난해 말 뇌일혈도 쓰러져 투병해 왔다.

1931년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문 고문은 모교 재학 시절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문 고문은 UN특별기금 행정관을 거쳐 한일합성 상무이사, 국제종합기계 대표이사, 대흥기업 회장을 지냈다. 고인은 1982년부터 재경동창회 회장을 맡아 5년간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쓰러질 때까지 10년 넘게 동기회장을 맡아 왕성하게 일해 왔다.<관련 기사 17면>

## 성상철 동문, 건보공단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지낸 성상철(21회) 동문이 12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성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입직원들과 함께 건강보험을 다듬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누리는 제도, 미래에도 안정된 제도, 세계로 뻗어가는 제도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성 동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 정형외과 전문의로 분당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하고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 선후배간 사령탑 대결

김용희 동문, SK 와이번즈 감독  
이종운 동문, 롯데 자이언츠 감독



김용희 감독



이종운 감독

‘미스터 올스타’ 김용희(28회) 동문과 ‘3루타의 달인’ 이종운(39회) 동문이 각각 프로야구 감독에 올라 선후배가 펼칠 사령탑 대결에 벌써부터 동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희 동문은 SK 와이번즈의 제5대 감독에 취임했다. 김 감독은 “좋은 팀, 강한 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 동문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프로야구 원년 멤버로 롯데에 입단했고, 롯데 감독, 삼성 감독을 거쳐 SK 2군 감독 등을 역임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약금 3억원과 연봉 3억원 등 총 9억원에 계약했다.

이종운 동문은 우여곡절 끝에 제16대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 발탁되었다. 이 감독은 “무엇보다 책임감이 앞선다”고 밝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동아대를 졸업하고 1989년 롯데에 입단했다. 이 동문은 2003년부터 10년간 모교 감독을 맡으면서 아시아청소년대회와 세계청소년대회의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 계약금 2억원과 연봉 2억원 등 모두 8억원에 3년 계약을 맺었다.





경남중고발전위원회 창립 5주년 인터뷰 / 초대위원장 배재욱 동문

## “모교 사랑 일깨워 명문 전통 이어나가야”

“그동안 동문들의 협조와 성원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성적표가 당초 목표치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초대위원장으로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노력이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임원직에서 물러났지만, 용마가족의 일원으로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배재욱(17회) 초대위원장(공동)은 경남중고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 5년을 중간 평가하면서 보람보다 아쉬움을 더 앞세웠다. 발전기금 목표액 100억 원이 아직도 그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흔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목표액에 ‘속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결기가 단호하게 들리되, 거듭해서 ‘개미군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진단과 처방에서 배 동문 특유의 전향적이고 창발적인 자유의지의 여지를 엿볼 수 있다. 그가 경발위 설립을 제창한 사유 또한 그런 자유의지의 소산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 “경고,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 경발위가 이웃 학교 동창회를 “벤치마킹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입길에 오르내렸고, 서로 비교하는 경우도 잦아서 마치 ‘후발 주자’ 처럼 비취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스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경발위는 말한 마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경고,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한 마디.

“재경동창회장을 하던 2008년, 부산에 다녀러 간 참에 모교를 둘러보고 싶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온 지인에게 ‘경고 한번 가 보자’고 했더니, ‘경고, 어디 있습니까?’라고 되묻는 것이었다. 순간 아찔했다. 뒷통수를 얻어맞은 듯했다.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인물이 바라본 모교의 위상이 그러했다. ‘어디 있소?’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즉시에 절감했다.”

배재욱 동문은 입직이 서울지역 명문고가 저마다 강남으로 이전한 사실을 직시하고 모교이전을 가장 먼저 강도 높게 주장한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경고, 어디 있소?’라는 한 마디에 받았던 충격이 어떠했는지는 부언할 필요가 없겠다.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동문들의 의견을 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도 정황을 들으시고 적이 놀라시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라’고 당부하시고 명예위원장을 수락하셨다. 정치계 동문들을 포함하여 각계 요인들을 만나 이해와 동참을 호소하고, 본부동창회에 가셔도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협의했다. 용마가족들에게 모교가 자기발전의 터전임을 깨우치고, 그 실체를 확인시켜 주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발위 설립을 추진하던 중에 부산고동창회가 우리보다 1년쯤 앞서 작업을 개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선발 주자로 꼽히는 서울고동창회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 -경발위 5년의 성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무엇보다 잊고 지냈던 모교 사랑을 일깨운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를 되찾은 것이다. 모교의 존재감이 추락하는데도 속수무책, 하릴없이 지켜보지만 했던 데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비로소 생성되었다. 그리하여 모교 사랑, 후배 사랑을 체계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 다양하고 열정적인 동문의식을 발현해 전통과 영광의 역사를 되살려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경발위 설립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경발위 설립을 추진하면서 동문들의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모교 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졸업생과 재학생, 전현직 교사, 학부모를 망라하는 범용마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를 구축했다. 경발위의 목적은 모교가 한



경발위 초대위원장 배재욱 동문은 발전기금 기부금의 액수보다 참여하는 동문들이 얼마나 많은가 더 소중하다고 말한다.

국 최고의 공교육 명문고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모교가 쌓아온 역사성과 시대정신, 또한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 등이 우리가 목표하는 ‘명문고’에 내포돼 있다. 이태석 신부 동상과 한국전쟁 전몰동문 추모 공간인 ‘성찰의 집’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자부심과 경륜, 지혜, 저력이 응축된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덕형관이야말로 광복 70년 역사를 헤쳐온 또 하나의 기념탑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그가 정의하는 ‘명문고’는 지난 세월 속 추억으로 남은, 박제된 존재가 아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명문다워야 한다. 그래서 경기고, 서울고, 경남고, 부산고, 4개 명문고 야구대회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명문에 대한 사회적 판정 내지 동의로 이해하고 명문의 자격과 실체적 역할에 주목한다.

“4개교 동문합창제도 뜻 깊은 한마당이였다. 동문합창단을 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 우월감에 젖은 서

울내기들이 용마합창단을 두고 ‘설마 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고에 후한 점수를 주었지만, 청중들의 호응은 경남고가 압도했다는 게 정평이었다. 창단 1년 만에 그러한 감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문의 자격을 증명한다. 또한, 부산시민들이 나서서 무쇠 팔 최동원상을 제정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 -경발위가 추진할 사업 방향은 무엇인가?

“장학사업은 모교 재학생과 대학 진학 동문, 동문 자녀들에게 실행하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뜻있는 동문들이 당해 연도 장학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일이다. 그동안 나를 포함하여 각계 동문들이 재학생들에게 특강을 펼치고 있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서울대 재직 교수동문회가 다시 결성되어 진학지도와 진로상담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1:1 맞춤형 멘토링에 기대가 크다. 1, 2학년 재학생 20명을 이미 선정했다. 멘토링 사업은 대학 진학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후배들의 장래는 물론이고, 동창회의 미래가 걸린 과업이기도 하다. 각계의 많은 동문들이 멘토가 되어 주기를 부탁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진학성적을 높이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에 재학생들이 서울 소재 학원에서 수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재직 교사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배재욱 동문이 4년간 맡았던 경발위 위원장의 바통은 임우근(19회) 전임 재경회장에게 다시 전재호 재경회장에게 넘겨졌다. 재경장학회 이사장은 구본능(21회) KBO 총재가 물려받았다. 배 동문은 전재호 위원장과 구본능 이사장의 활약에 기대를 걸며, 비록 ‘백의종군’이로되, 힘닿는 데까지 전방위로 지원할 체비를 갖추고 있다. 기별, 직능, 직장별 동창회에도 각종 동호회에 대해서도 목표액 달성을 호소, 독려할 작정이다. 물론, 목표 달성의 관건은 결국 동문 각자의 참여에 달려 있음을 ‘사무치게’ 인지하고 있는 터이다.

“이웃 학교와 견주는 게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니지만, 용마들의 결속력이 정말 여기까지일까 실망스럽기도 했다. 그쪽은 최고액 기부자가 5억원 1명인데, 우리는 10억원 기부자가 3명이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시일반으로 참여한 인원이 우리보다 2배쯤 많다는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인 셈이다. 개미군단의 위력으로 명문의 자격을 뽐낸 그들이 자랑스러워 보인다.”

배재욱 전 위원장은 서해량(9회) 동문을 위시해서 다달이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이상룡 / 24회, 편집주간

## 노세현 동문 11개월째

매달 20만원씩, 누적액 2백2십만원



본부동창회에 11개월째 매달 20만원씩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동문이 있다. 동아대 의대 교수 노세현(22회) 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노 동문은 동창회보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했다.

노 동문은 평소 “사회

의 모든 분야에서 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성이야말로 의학도의 최우선 덕목”이라고 강조해 오고 있으므로 “모교가 인성을 반듯하게 갖춘 인물을 양성하는 명문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의료봉사로 헌신한 성산 장기려 박사의 생애를 사표로 삼아 후학들을 가르쳐 왔다.

녹내장과 백내장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노세현 동문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전임강사와 인제대 교수를 거쳐 지난 1989년부터 동아대 의대 안과학교실에 주석하며 의학전문대학원장과 의대학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탁월한 친화력으로 많은 선후배 동문들과 폭넓게 교분을 나누고 있고, 용마가족들의 진료에는 가리지 않고 나섬으로써 동문들의 찬사를 받아왔다.





24개월째 이어지는 10만원, 발전기금의 보루 서해량 동문

# 돈보다 더 귀한 '희망'도 기부한다

하나은행 214-91006-95705. 이 계좌의 예금주는 경남 중고발전위원회이다. 서해량(9회) 동문은 다달이 10만원을 이 계좌에 입금한다. 꼬박 2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그가 경발위에 기부한 돈은 10만원씩 24번 낸 24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610만원이나 된다.

계좌의 예금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익히 알고 있으므로, 그에게 매달 10원씩 입금하는 까닭을 묻는 것은 싱거운 일일 터인데, 정작 그의 대답은 좀 이색적이다. "재미로 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랬다. '재미'는 그에게 삶을 영위하는 아이콘 제1호이다. 그는 매사에서 '재미'를 찾고, '재미'를 향유한다. 심지어 '재미'가 냉큼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만의 비방으로, 마치 주술을 부리듯이, '재미'를 요리해 내는 듯했다.

"잡자리에서 일어나면 세 가지 수칙을 항상 확인한다. 우선은 삶의 기쁨이고, '오늘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또 '남을 기쁘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다지는 일이다."

아내와 자식은 물론이고 친구를 비롯해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 그가 매일 아침 발원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다달이 10만원을 기부하는 것이 그에게는 '재미'이거니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 "재력가들이 오히려 더 인색하다"

9회 동의회 회장을 '장기집권'하고 있는 서해량 동문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동기들을 만난다. 바둑으로 잠시 머리를 식힌 다음 저녁 밥상에 둘러앉는 것이 정해진 일정이다. 10명 내지 15명이 아우러져 토요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린다. 물론 밥값은 회장인 그의 몫이다.

"우리 9회 동기에 할당된 발전기금은 5천만원이었는데, 재력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인색한 것 같았다. 할당 금액을 다 채우지 못했다. 심심일반이라고 했는데 섭섭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내면 어떨까 싶었다. 끝까지 하다 보면, 동참할 친구나 후배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 계속하고 있다."

그가 걱정하는 '끝까지'는 그의 나이 여든다섯 살을 가리킨다. 이제 여든 살이므로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 여기서 등장하는 '5년'은 그가 지금 행하고 있거나, 장차 하려고 하



여든살이 되는 서해량 동문은 여든다섯살까지는 기부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는 일체의 기부 행위를 지속하기로 작정한 기간인데, 모교 발전기금 기부만큼은 "5년 이후에도, 살아갈 동안 계속하고 싶고 금액을 더 늘일 생각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교 3학년들에게 '서해량 희망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학년 1년 동안, 성적이 크게 향상된 학생 1명과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학생 1명,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린 학생 1명씩, 한 반에서 3명씩을 뽑아서 27명에게 30만원씩 '희망격려금'을 지급한다. 그는 재학 시절, 3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전체 4등을 차지한 사례를 소개하고 "2학년 때 열심히 했으므로 그런 성적을 거두었다"면서 후배 재학생들도 2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

게 생활하라는 취지로 '희망장학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밀양시 하남읍에서 태어난 서해량 동문은 이전서씨종친회 회장을 맡으면서 자신이 출연한 종친회장학회를 만들었고, 밀양의 초·중학교 모교에도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미국의 기부문화와 견주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기주의가 만연하다고 진단하는 그는 "비록 조금이나마, 여력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부채 1억원 '신용불량자'가 기부물?

정미소도 운영했던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해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서해량 동문은 세무사로서 착실하게 재산도 모았다. 그러나 수십억 원을 잃었던 낭패를 당하면서 생각을 바꾸었다.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아내에게 맡긴 그의 재산은 놀랍게도 부채 1억원뿐이다.

"아내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그의 부채 1억원은 은행 신용대출금이다. 이 대출금이 기부금을 생산하는 종자돈이다. 과연 '재테크의 달인'이라 이를 만든 그는 그 1억원을 주식 등에 투자해서 매달 1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다. 기부문화에 뜻이 있는 동문이라면 '투자달인'에게 상담을 신청해도 무방할 듯하다.

'신용불량자 서해량'은 그 수익금으로 아내에게 생활비도 대고, 동기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며, 장학금과 기부금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장차 누구를 또 기쁘게 할 요량으로 얼마간 비축하기도 한다.

붉은색 체크 남방 위에 검색 윈드자켓을 헐렁하게 걸친 서해량 동문을 밀양 어디에서 만났더라면, 세련미가 얼핏 엿보이기는 하되, 영락없이 시골농부로 알았을 법하다. 마음 씀씀이가 무척이나 넉넉해 보인다. 누구를 기쁘게 해 주려는 자상함이 물씬 묻어난다. 돈 냄새는 느낄 수가 없다.

서울 구반포에서 만났을 때, 그는 오후 '보행 과업'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그는 매일 1만 보 기량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계속되는 보행 일과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셋째딸의 재활운동과 병행한다. 서두르는 법은 없지만, 해야 할 일과 마음먹은 일은 빠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연하다. 매달 10만원씩 쌓이는 그의 기부가 거대하게 다가오는 까닭이겠다.

이상룡 / 24회, 편집주간



## 3월에도 야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제2회 전국명문고교야구열전 구덕운동장에서 개막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고 (주)토콤이 주관하는 제2회 전국명문고교야구열전이 2015년 3월 19일 개막, 나흘간 구덕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참가 고교도 4팀이 더 늘었습니다. 용마가 족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케이블 TV Xtm이 중계합니다. 2015년 야구시즌 개막을 알리는 이번 대회에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경남고 부산고 경기고 서울고 경북고 광주일고 상원고 천안북일고

■ 개막식 3월 19일(목) ■ 결승전 3월 22일(일)



◎ 주최 ; 파이낸셜뉴스 ◎ 주관 ; (주)토콤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시교육청 대한체육회 대한야구협회 부산시야구협회



# 오랜 만에 찾은 경남중, 滿場으로 성원했다

## ‘2014 용마의 밤’ 5백여 용마 대성황, “의미있는 효과 있다.”

### 30여년 만에 찾은 모교 경남중

‘2014 용마의 밤’은 관행처럼 시행해 온 호텔을 탈피해 모교를 찾았다는 점에서 우선 검약하고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때 모교 경남중학교 옛 체육관에서 대규모 동창회 행사를 치렀던 이래로 열추 30년도 더 지나, 신축 경남중 교사 대강당에서 동창회 최고 행사를 가져 더욱 주목을 끌었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용이한 점이 주효해서 이날 준비한 500 좌석을 모두 매웠고, 상당수 동문들이 미리 마련된 기별 테이블에 보조 걸상을 가져와 ‘끼어앉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만장의 참석에 고무된 허범도 회장은 가장 많은 참석자를 낸 22회, 28회, 35회 동기회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박수를 유도하기도.

### “후배 재학생 교육효과 크다”

매우 오랜 만에 ‘주인 진객’들을 맞는 경남중학교는 교장 이요섭(27회) 동문의 진두지휘 아래 만반의 준비를 갖추느라 ‘비상 총동원령’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 교직원 입동은 물론, 재학생 후배들의 일사분란한 기동력 덕택으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

이요섭 교장은 ‘귀하신 분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여서 긴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렇다 할 불편함이 없이 무사하게 치러진 데 대해 크게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더 나아가, 이 교장은 “경남중학교로서는 상당한 잠재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며 이렇게 분석했다.

“그동안 경남중은 동문들에게서 떨어진 소외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용마의 밤’ 행사로 그런 소외감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이 우선 큰 소득이다. 지난 6월 ‘용마 음악의 밤’을 계기로 경남중고가 한 뿌리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면, 이번 행사는 결속 의식을 더욱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학생 간부들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선배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매우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교직원들 반응도 마찬가지다. 용마동문 위상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이요섭 교장은 운영위원들과 학부모회 임원들도 동창회를 새롭게 보았을 것이라면서 “행사가 끝난 뒤 교직원과 학생들 누구 하나 군말 없이 깔끔하게 청소를 끝냈다”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식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 “1등 경품, 짜고 친 게 아니냐?”

이날 행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역시 경품 추첨 순서. 수많은 경품을 일일이 추첨하기에는 밤을 새워도 어렵게 되자, 사회자가 동기회 기수를 추첨해 경품을 ‘왕창’ 안기는 바람에 당첨된 기수는 일거에 ‘대박’이 터지기도. 특히 기별 사무국장을 모두 무대로 불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허범도 회장이 일일이 선물을 전달해 박수를 받았다. 다만, 기수별 사무국장 신분을 날날이 가릴 방도가 여의치 않다는 빈틈을 재빨리 간파한 ‘즉석 취임’ 1회용 사무국장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또한, 마지막 추첨 순서인 1등 당첨자로, 사실상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국회의원 박대동(23회) 동문이 당첨되자 장내에서는 허범도 회장이 “짜고 친 게 아니냐?”는 속덕공론이 터져 나왔던 것. 50만원어치 대박을 안은 23회 동문들은 행사가 끝나자마자 원도심의 추억어린 주점을 찾아 곧바로 이동하며 만면의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여타 동기들도 저마다 2차 장소를 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연출했다.



①동창회기와 경남중고 교기 입장 ②경중 난타팀이 힘찬 북소리로 ‘용마의 밤’ 개막을 알렸다 ③개회식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용마합창단은 ‘축제의 노래’ 등을 연주했다 ④참석 동문들은 기수별로 마련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⑤허범도 회장이 행사준비로 수고한 경중 이요섭 교장에게 금일봉을 전했다 ⑥차기 동창회장으로 유력한 박대동 동문과 허 회장이 환한 표정으로 포즈를 잡았다 ⑦허범도 회장이 기별 사무국장들을 무대로 불러 격려했다







⑧이날 행사에는 경중 운영위원들과 학부모회 임원들도 참석했다. 행사장 준비에 교직원들의 수고가 컸다 ⑨⑩⑪이날 행사 2부 여흥 순서에는 국악연주를 비롯해서 초청가수, 동문 성악가 등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⑫60만원어치 상품권이 걸린 1등 추첨에서, 사실상 차기회장으로 추대된 국회의원 박대동(23회) 동문이 당첨되자 장내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동창회장 기수로 예정된 23회 동문들은 겹경사를 맞아 행사가 끝나자마자 추억의 주점을 찾아 총총걸음을 옮겼다

### '용마의 밤' 행사광고 협찬 동문

- △국무총리 정홍원(17회) 200만원
- △부산광역시청 서병수(25회) 100만원 △태광 대표이사 윤성덕(30회) 100만원
- △전 법무부장관 정치근(4회) △나부코 회장 이대규(9회) △은성사 회장 박보국(12회) △효산의료재단 샘안양병원 이사장 이상택(13회) △쿠쿠홈시스 회장 구자신(14회) △푸르밀 회장 신준호(14회) △윈스틸 회장 송규정(16회) △조광페인트 회장 양성민(16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양휘부(16회) △최성호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 최성호(17회) △전 주일본 대사 권철현(19회) △세영선박공업 대표이사 김경재(19회) △동화목재 대표이사 김봉호(19회)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이용흥(19회) △기명 대표이사 황태원(19회)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20회) △부산시 강서구청장 노기태 (20회) △대저건설 회장 박용덕(20회) △대법원장 양승태(20회) △KBO총재/희성그룹 회장 구본능(21회) △춘해보건대학교/춘해병원 이사장 김조영(21회) △대주건설 회장 여환부(21회) △전 해양수산부장관/부산대 석좌교수 오거돈(21회) △세계계통상 대표이사 임경범(21회) △동산병원 원장 전우성(21회) △JC텍 대표이사 정상인(21회) △신동개발 대표이사 김원주(22회) △삼우교통 대표이사 박흥조(22회) △휴롬 회장 김영기(23회) △협성해운 대표이사 백창영(23회)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 사장 이병찬(23회) △성산회계법인 회장 이부식(23회) △엘카라 대표이사 이상수(23회) △한국거래소 이사/코세코 고문 곽두희(24회) △문화통신공업 대표이사 노상우(24회) △부산시 서구청장 박국제(24회)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25회) △태영상선 대표이사 박영안(25회) △제이텍 대표이사 박중찬(25회) △진영금속 대표이사 최동하(25회) △신태양건설 회장 박상호(26회) △남진교통 대표이사 이규용(26회) △SK텔레콤 부회장 임형규(26회) △수정회집 대표 김경진(27회)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김태우(27회) △한국에너지포럼 중앙회장 구영소 (28회) △경상일보 대표이사 배영철(28회) △법무법인 국제 고문변호사 이원철(28회) △NPC 회장 임익성(28회) △진영푸드 대표이사 최강호(28회) △법무법인 정인 대표변호사 박성철(29회) △부산은행 상임감사 박창연(29회) △조한욱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한욱(29회) △부산대학교 총장 김기섭(30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김영훈(30회) △상명무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헌태(30회) △부일석유 대표이사 서하수(30회)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윤인태(30회) △동의의료원 병원장 이인길(30회) △부산시경제특보 정기룡(30회) △KBS부산총국 심의실장 정해석(30회)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최영식(30회) △동진섬유 대표이사 최우철(30회) △토암건설 대표이사 남기태(31회) △경민 T&M 대표이사 류명석(31회) △케이씨 대표이사 손영태(31회) △KCC상사 대표이사 오민일(31회) △외환은행 영남본부장 이병태(31회) △하나병원장 정철수(31회) △경상남도 고성군수 하학렬(31회) △청우특수 대표이사 홍성수(31회) △부산예술대학 총장 안원철(32회) △김&정 해운대병원장 김법영(33회) △고려개발 회장 박명진(33회) △부산일보 상임감사 조 선(34회) △박동물종합병원장 박창석(35회) △협성운수 대표이사 정윤성(35회) △구포하나정형외과의원 원장 유호섭(37회)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장 윤경만(38회) △동아탱커 대표이사 이종명(38회) △알파신경외과의원 원장 박인석(39회) △대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경환(40회) △강촌훼미리타운 대표 백창봉(41회) △이노인테리어 디자인 대표이사 이양걸(41회) △초량한의원 원장 임진성(43회) 확인불명 1명 각 20만원

### '용마의 밤' 협찬금품

- △김영기(23회, 휴롬 회장) 휴롬 녹즙기 1점 △류명석 (31회, 경민T&M 대표이사) 고급 와이셔츠 10점 △안원철(32회, 부산예술대학 총장) 송월타월, 우산세트 40박스 △박명진(33회, 고려개발 회장) 아이스퀘어호텔 숙박권 3매 △박인석(39회, 알파신경외과의원 원장) 릴레이션 시술권 5매 △김해지역동창회 (회장 이상운, 23회) 50만원 △대구지역동창회(회장 허규판, 20회) △사하지역동창회(회장 진양호, 34회) △중부산지역동창회(회장 임철호, 24회) △창원지역동창회(회장 한원우, 26회) △부산시용마회(회장 손병철, 32회) 각 30만원 △기독동문회(회장 최현림, 25회) 20만원
- △협찬 기수(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5회, 36회, 37회, 38회, 40회, 41회, 43회, 44회, 47회, 50회)



# 25회, 용마스포츠 시니어 최강자로 군림

## 기별대항 골프·당구대회 우승, 야구 패권은 33회, 47회

### 골프, 당구 강세에 "야구는 외로워?"

정관계와 경제계는 물론 교육문화계에서도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는 25회 동기가 스포츠 부문에서도 시니어 그룹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25회는 용마가족의 가을축제로 펼쳐진 제16회 용마골프대회와 제2회 용마당구대회를 휩쓸며 용마체육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11월1일 모교 야구장에서 폐막된 제46회 기별야구대회에서는 발군의 기량을 보인 33회와 47회가 각각 장년부와 청년부 우승을 차지했다. 36회와 45회는 각각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와 함께, 모교 졸업기수가 70회를 넘기면서 용마가족의 연령대가 노장청 3대로 확연하게 분화되면서 스포츠 행사 참여 판도가 크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기(校技)로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지켜온 야구대회는 시니어 그룹이 점차 이탈하는 데다가, 동대회 결성이 미진한, 50회 기수대 주니어 그룹의 참여마저 부진함으로써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범동문 차원에서 스포츠 행사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별야구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경야회 이길상 고문은 동대회 자체 행사는 치르면서도 기별대회를 기피하는 일부 기수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대표자회의와 개폐회식 때만이라도 동창회 회장단이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교 야구부 지원도 몇몇 동문에 의존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주니어 그룹 동문들은 동창회 집행부의 무관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 제46회 기별야구대회

- ★장년부 우승 33회, △준우승 36회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김윤성(33회) △최우수투수상 백수현(33회) △감독상 박태종(33회) △타격상 1위 공진우(33회) 김철수(36회) 3위 하인수(45회) △감투상 안재익(36회)
- ★청년부 우승 47회 △준우승 45회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정 신(47회) △최우수투수상 전성진(47회) △감독상 허기호(47회) △타격상 1위 차기혁(47회) 2위 손창오(45회) 3위 하인수(45회) △감투상 윤삼대(45회)
- ★참가상(개회식) 1위 47회, 2위 32회, 3위 36회

### 제16회 용마골프대회

- ★단체전 △우승:25회(233타) △준우승:17회(239타) △3위:23회 동대회(242타)★단체전 개인상 △우승:송영근(25회) △준우승:이수창(17회) △3위:정상건(23회)
- ★개인전(A조) △우승:여철우(24회) △메달리스트:유재진(22회) △준우승:황태원(19회) △3위:김달경(11회) △통기스트:노상우(24회) △니어리스트:허홍욱(19회)
- ★개인전(B조) △우승:이태운(39회) △메달리스트:황기윤(34회) △준우승:안병규(44회) △3위:안성호(40회) △통기스트:한봉균(42회) △니어리스트:김대훈(43회)

### 제2회 용마당구대회

△우승 25회, 준우승 42회 △특별상 임상택(25회, 최다연타 9타)



용마스포츠 세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퇴조한 기별야구대회에서는 33회(사진 왼쪽)가 장년부 우승을, 47회(사진 위)가 청년부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20년 연륜을 바라보는 골프대회는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고, 지난해 창설된 당구대회는 범기수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행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남진현 본부 상임부회장과 김도살 당구회 장(맨 아랫단 오른쪽 사진)이 개막 시타를 했다.







제1회 최동원상 시상식/불멸의 투혼, 뜨겁게 부활하다

# “이처럼 감동적인 시상식은 없었다”

## 이길상, 박영길, 허구연, 이대호 동문 등 용마군단 대거 출동



‘무쇠팔 최동원상’ 시상식에는 부산시민과 야구팬들이 식장을 가득 메웠다. 이만수, 감용철, 한문연 선수 등 최동원 동문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던 왕년의 스타들도 대거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길상 경야회 고문을 위시하여 어우홍 전 모교 감독, 박영길 전 롯데 감독(아래 사진) 허구연 해설위원, 이종운 롯데 감독, 이대호, 송승준 동문, 경고야구부 선수단 등 용마야구군단이 출동했다.

살아 있는 신화에서 이제는 전설이 된 그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야생야사’ 부산갑매기들은 그이를 쉽사리 보낼 수 없었고, 그이 또한 차마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배번 ‘11’을 잊지 못하는 야구팬들이 택일한 11월 11일. 불세출의 영웅, 고 최동원 동문이 ‘다시 살아’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날 무쇠팔 최동원상 초대 수상자인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 시상식이 열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신사옥 대강당은 그의 부활을 확인하려는 야구인과 야구팬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내빈소개에서부터 용마인들이 압도했다. 경야회 고문 이길상 동문을 위시해서 롯데 자이언츠 초대감독 박영길 동문과 전 모교 감독 어우홍 최동원상 선정위원장, MBC 해설위원 허구연 동문, 신임 롯데 감독 이종운 동문, 일본 소프트뱅크 이대호, 롯데 송승준 동문, 그리고 박창호 본부회장과 서구청장 박규제 명예동문, 모교 교장 서강태 동문과 모교 야구선수들이 참석해 전설 속의 용마 최동원 동문을 추억하며 무쇠팔의 투혼을 되돌아보았다.

수상자 선정 결과를 설명한 어우홍 전 감독은 최 동문의 강점을, 뛰어난 타자 분석력, 타자의 약점을 찌르는 제구력, 몸쪽으로 파고드는 위협구, 뛰어난 수비 능력, 탁월한 도루 견제 등 5 가지로 요약하고 “한국야구의 브랜드를 높인 선수였다. 해외 원정경기는 그가 도맡아 던졌다. 82년 세계야구대회 우승의 원동력은 최동원이다. 그 원동력이 프로야구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의 가치는 계량하기 힘들다”고 회고했다.

“20~3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투수였다”고 평정한 박영길 동문은 1984년도 한국시리즈에서 불후의 기록인 4승을 쟁취한 당시를 술회하면서 “7차전 마운드에 오른 최동원은 너무나 생생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흑사당하고도 보여준 당당한 투혼과 정신력은 경이로운 것이었

다”며 고인을 삼성으로 트레이드 한 롯데측의 태도를 못내 안타까워했다.

### “내 뭉까지 야구 해 다오”

동료 선수이자 피할 수 없는 호적수로 만나야 했던 이만수 전 SK 감독은 1973년 청주에서 열린 중학교 시험 때 처음 최 동문과 대적한 이래로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프로에 와서까지 최동원의 벽을 넘지 못한 지난날을 돌이키면서 “그 친구 때문에 나는 늘 2등이었다.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세든지, 지금 생각해도 어지러운 만큼 대단했다”며 훌쩍 떠난 맞상대의 탁월한 기량과 투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 감독은 최 동문이 운명하기 전날 인천에서 달려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일을 털어놓으며 “말문이 닫힌 그가 눈으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내 뭉까지 야구 해 다오’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장내를 숙연케 했다. 이 감독은 “야구가 끝날 때까지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말을 맺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 동창회 모습 보이지 않아 아쉬워

‘한국의 사이언스’를 표방하는 최동원상은 우리 체육계에 유래가 없는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야구팬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고, 부산시민들이 열정적으로 호응한 데 이어 부산은행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이 후원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최동원 동상건립에 후원금 5,000만원을 쾌척한 데 그치지 않고, 제1회 최동원상 시상에도 상금 2,000만원과 행사비 1,000만원, 그리고 시상식장과 진행 요원 일체를 후원함으로써 야구계 및 부산시민들의 여망과 참땀공함을 이루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BN그룹과 계열사인 대선주조도 동상건립에 2,0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서 이번 시



상식에도 참석자 기념품을 협찬했다.

야구 대기자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는 전 일평 오에스이엔 편집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야구 시상식을 보아왔지만 최동원상만큼 감동적인 시상식은 일찍이 없었다”면서 ‘최동원의 부활’은 야구도시 부산의 진면목을 과시한 쾌거였다고 격찬했다. BS금융그룹 성세환 회장은 “최동원상이 부산은행 신사옥 대강당 개관 첫 행사로 치러진 것이 영광스럽다”면서 “최동원상을 국내 최고 권위의 야구상으로 키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해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날 시상식에 우리 동창회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아 참석 동문들을 뜨악하게 했다. 야구계 인사로, 또는 모교 등 관계기관 대표로 참석한 용마인들이 초청 내빈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정작 동창회를 대표하는 참석자는 소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동창회의 축하회환조차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최동원기념관건립위원회 고문인 오거돈 전 회장은 이날 해외 출국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하늘나라 최동원 감독도 기뻐할 것”

한편, 최동원상 제1호 주인공의 영예를 누린 양현종 선수가 상금으로 야구 꿈나무들에게 야구공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최동원상의 참뜻을 더욱 빛냈다.

이같은 사실은, 정원 미달로 폐교될 위기를 딛고 창단 2년 만에 전국을 제패한, 양산 원동중학교 야구부장 최윤원 교사가 감사

### 용마골프대회 협찬금품

- △본부동창회장/부산대 석좌교수 허범도(22회) 500만원
- △본부동창회 명예회장/대전조선 회장 안강태(11회) △푸르밀 회장 신준호(14회) △윈스틸 회장 송규정(16회) △삼화어구사 대표 장홍의(19회) △기명 대표이사 황태원(19회) △고려수산 대표이사 김학균(22회) △청호빌딩 대표 박장현(26회) △태광 회장 윤성덕(30회) △화인베스틸 회장 장인화(35회) 각 100만원
- △지에프 회장 윤승홍(14회) △조광페인트 회장 양성민(16회) △M.S.C 회장 김길제(18회)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 대표 이병찬(23회) △성산회계사무소 세무사 이부식(23회) △디오 회장 김진철(25회) △고려개발 회장 박명진(33회) △평마골프회 회장 박장현(50회) 각 50만원
- △이노이&F 대표이사 이양걸(41회) 30만원 △경남고운영위원장/동주대 교수 류장근(33회) 20만원 △39회, 41회, 44회 동기획 각 10만원
- △부산스타자동차 회장 유재진(22회) 벤츠 승용차(출인원 상) 벤츠 윈드자켓, 골프백 6점 △쿠쿠전자 회장 구자신(14회) 압력밥솥 3점, 커피포트 1점 △대경F&B 대표이사 강창수(21회) 명란세트 10점 △경성대학교 총장 송수건(24회) 양말 5점 △28회 동기획;10만원권 주유상품권 5장 △부산대학교 총장 김기섭(30회) 머그컵 50개 △경민T&M 대표이사 류명석(31회) 고급 와이셔츠 10점 △미래철강 대표이사 김종식(32회) 프렌치드랍스 아르간 오일 & 미스트 세트 5점 △고려개발 회장 박명진(33회) 아이스케아호텔 숙박권 3매 △39회 동기획;흑표고버섯 4세트(40만원 상당) △여행스토리 대표이사 한수열(40회) 골프백 항공커버 2점, 여행용, 휴대용 고급가방 각 1점 △대명리조트 영남지사 과장 최동환(53회) 대명콘도 숙박권 3매, 오션베이 이용권 3매 △동래칸트리클럽 총지배인;우드 2점

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최동원기념사업회에 양현종 선수의 전화 연락처를 물어오면서 알려졌다. 양 선수는 자신의 모교인 광주 학강초등학교와 동성중, 동성고에 모두 100박스를 전달하고, 최동원 동문의 모교인 경남고에도 40박스를 전달하는 등 모두 170박스를 기부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 강진수 사무국장은 양현종 선수가 상금을 “꼭 좋은 곳에 쓰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무쇠팔 최동원이 양현종을 탄생시키고, 양현종의 좋은 에너지가 야구 꿈나무들에게 든든한 희망으로 자라나기 기원한다”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최동원 감독도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 살살한 세밑 데운 훈훈한 기별 송년회

## 5회 원로들도 '100세 건배', 우애와 결속으로 '送舊迎新'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유달리 기대가 컸던 용마가족들이 동기별, 지역별, 직능별, 동호회별로 못다 이룬 아쉬움을 나누며 저마다 송년행사를 갖고 새해에도 우애와 결속을 더욱 다져 나가기로 다짐했다.

'인생 100세 시대'를 구현할 5회 동문 15명은 12월13일, 서면 소재 남대문에서 송년모임을 가지고 "새해에도 건강을 제일로 하자"며 건배했다. 이날 서울의 김영한 동문이 참석해 재경 동기들의 소식을 전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15회 동기회는 12월5일, 일찌감치 민락동 청도미가희집에서 50여명이 동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15회는 10월15일 동기회관에서 개관 19주년 기념식을 가진 뒤, 구포집에서 웰레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한 명성요양병원 의료원장이 용자 동문이 50년 만에 동기들과 재회해 회포를 풀었다. 김경일 동기회관 운영위원장은 이날도 회식비 전액을 쾌척했고 무공수훈자 부산지부장 임영길 동문은 동기회 발전기금을 내놓았다.

### 19회, 29회는 홈커밍 행사 논의해

지난 11월8일 50여명의 동기가족들이 동행해 전남 여수에서 가을야유회를 가진 17회는 12월15일 연산동 해안뷔페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형우 회장 후임으로 선임된 박청홍 회장은 이날 동기들의 건강과 더욱 긴밀한 교우를 당부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편 17산악회는 12월28일 언양 배내고개 일원에서 산행 1,000회 돌파기념 행사를 가졌다. 1987년 5월3일 시작해 27년 8개월 만에 1천회를 돌파한 이날 산행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방교윤, 정충언, 조현우 동기 등 30여명이 동행했다.

갑오년에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18회도 12월9일 민락동 씨사이드 뷔페에서 90여명의 동기가족들과 송년의 밤을 열었다. 19회는 11월2일 충북 충주 송계 계곡 일원에서 서울과 부산의 동기가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산행 행사를 가졌다. 계곡산행을 마친 일행은 충주호 일대를 드라이브하며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9회는 2015년 4월25일 졸업 50주년 행사를 갖기로 하고, 기념문집도 간행할 계획이다. 20회도 10월25일 동기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야유회를 즐겼다.

24회는 12월17일 자갈치 오아제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김인철 동문이 동기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인철 회장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활짝 열린 동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의 '산우애'와 서울의 '산타래'는 11월1일 11번째 경부합동산행을 즐겼다. 영도 동삼동 국립해양박물관을 출발해 태종대 자갈마당, 해안산책로, 남향대교를 거쳐 송도에 이르는 울레길을 걸은 뒤 구포집에서 뒷풀이를 열고 우애를 나누었다.

### 서병수 부산시장도 막걸리로 건배

25회는 12월17일, 30여명이 범일동 석화한정식에서 송년회를 가지고, 골프대회와 당구대회 우승을 자축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송정규 동기회장과 막걸리로 동기들의 건강과 발전, 그리고 부산시의 힘찬 진군을 기원하며 건배했다. 27회도 12월19일 서면 터존뷔페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가졌다.

28회는 12월15일 화교대반점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가지고 40주년 홈커밍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자축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임회장으로 이경포 동문을 선임하고, 신영준 동문을 총무에 위촉했다. 졸업 40주년을 앞둔 29회도 12월19일 부광호텔에서 이사회 겸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40주년 기념행사를 4월25, 26일 이틀간 열기로 하고 장소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가지기로 했다.

32회는 12월10일 협성뷔페에서 40여명이 참석해 송년회를 열었고, 34회는 18일 스타일웨딩홀에서 40여명의 동기가족들과 송년행사를 즐겼다. 41회 송년회도 19일 서면 미가정집에서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20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모임과 행사를 자제했던 용마가족들이 가을을 맞으면서 산행과 야유회 행사를 갖고 우애를 다졌다. 17회 산악회(사진 맨 위)는 산행기록 1,000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1987년 5월에 시작해 27년 8개월 만에 수립한 대기록이다. 19회(가운데 사진)는 서울과 부산의 동기가족 9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충주 송계계곡으로 합동산행 행사를 열었다. 졸업 50년을 맞는 19회는 4월25일 홈커밍 행사를 갖고 기념문집도 발간한다. 24회 부산동기회의 '산우애'와 서울동기회의 '산타래'가 11번째 합동행사에 사진 맨 아래를 가졌다.

**어디서  
무엇을?**

<9회> △동기회 사무실 이전. 부산시 진구서전로 9번길 52(부전동) 진효파크빌 오피스텔 501호. TEL : 051-816-2335 △정일호 = 「화선지」 '문학의전당 시인선' 184. 2008년 계간 「뿌리」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정일호 동문의 첫 번째 시집.

<10회> △김기훈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LH 이노벨리@. 508동 1203호. TEL : 070-8844-3328

<13회> △노경규 =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정규청 = 12월 1일 병부상, 삼성 서울병원

<15회> △김형영 = 8월 8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임영길 =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 지부장. 해군 작전사령관 정호섭 중장의 초청으로 지난 7월 11일 한 미 일 합동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방문 참관.

<16회> △박기용 = 에세이 「에견 속 인생 이야기」 발간. 약 20년 동안 부산 서면에서 종견사탄 상호로 애견센터를 운영하면서 있

었던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17회> △김길호 = 11월 25일 병모상, 울산 좋은삼정병원 △박장석 = 11월 23일 장남 결혼, 울산 센트럴 웨딩

<18회> △강동섭 = 12월 13일 차남 결혼, 웨스틴조선비치호텔 △강정일 = 2015년 1월 10일 삼남 결혼, 서울 G타워(구 LG강남타워) △정기용 = 11월 16일 장남 결혼, 서울법원종합청사

<19회> △남기진 = 11월 8일 아들 결혼, 63빌딩 웨딩홀 △이해명 = 11월 5일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20회> △강경수 = 11월 4일 모친상, 울산 중앙병원 △김한원 = 11월 28일 모친상, 동

아대병원 △박정근 = 12월 20일 딸 결혼, 애니버서리 청담 △박지오 = 11월 15일 장남 결혼, 영락교회 △안덕준 = 2015년 1월 10일 장남 결혼, 더 화이트베일 △정순현 = 12월 14일 모친상, 서울 아산병원 △표문량 = 11월 3일 모친상, 강동 경희병원

<21회> △배 일 = 11월 30일 딸 결혼 △배종덕 = 에세이 「현대차와 함께 25년」 발간 △육화원 = 12월 14일 딸 결혼, 파티오나인 △전재호 = 11월 22일 딸 결혼, 명동 영락교회 △정영천 = 12월 6일 딸 결혼 △최현두 = 11월 23일 아들 결혼

<22회> △김동진 = 2015년 1월 10일 아들 결혼, 라움 △김영문 = 11월 15일 딸 결혼, 파티오나인 △박규모 = 12월 6일 차남 결혼, 문수구장 컨벤션웨딩홀





①18회 동기회는 졸업 50주년행사를 치렀다. 송년회에도 많은 동문이 참석했다 ②20회 동기회의 가을야유회 ③졸업40주년 홈커밍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28회 동기회 송년모임에서 구영소 회장이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공로로 받은 공로패를 들어 동기들의 협조에 감사했다 ④24회 동기회의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⑤29회 동기회 송년회 ⑥25회 동기회 송년회 ⑦부산시장 서병수 동문이 바쁜 일정을 쪼개 송년회에 나와 송정규 회장과 막걸리 건배를 했다 ⑧34회 동기회가 부부동반으로 송년회를 열었다 ⑨41회 동기회가 송년회를 갖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 동기회 동정 안내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과 동기회 동정을 빠짐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동정 내용은 되도록 상세하게 알려 주시고, 사진도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사진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확대해서 게재하기 곤란한 사진들도 많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 편집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회> △강기원 = 11월 22일 장남 결혼, S 컨벤션 △구자섭 = 11월 4일 장인상, 서울 아산병원 △박광규 = 10월 18일 장녀 결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박기홍 = 12월 27일 딸 결혼, 부산 팰레드시즈 △박완수 = 11월 1일 장남 결혼, 코엑스컨벤션센터 △배준석 = 11월 23일 아들 결혼, 더 청담 △이대성 = 11월 1일 장남 결혼, 삼성동 더휴웨딩홀 △이덕남 = 11월 16일 딸 결혼, 부산 롯데호텔 △장찬규 = 2015년 1월 10일 차남 결혼, 가드프라이브 웨딩컨벤션 △최재영 = 11월 19일 모친상, 입산 백병원 △하길용 = 10월 18일 딸 별세, 수 요양병원 △황종원 = 11월 22일 장남 결혼, 해군호텔 W웨딩홀

<24회> △강경환=전 KT 상무이사. 2013년 11월 양성 뇌종양 판정을 받고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1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중. 가족들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소송 준비중. 기도 부탁드린다고 함. (연락처 : 부인 김혜숙 010-9630-5522) △남창영=2015년 1월 24일 차녀 결혼, 센텀사이언스파크 △장원서=11월 15일 장녀 결혼, 롯데갤러리움 △정태운 =11월23일 아들 결혼, 플라자호텔 △태창업=11월22일 장남 결혼, 센텀사이언스파크

<25회> △고명식 = 10월 4일 차남 결혼, 서울잠실중앙교회 △김국진 = 11월 30일 장녀 결혼, 라움 △김상수 = 10월 11일 장녀 결혼, 아르피나(부산유스호텔) △노영찬 = 10월 25일 장녀 결혼, 남천성당 △안대상 = 12월 20일 장녀 결혼, 스타일웨딩 △임수훈 = 10월 18일 장녀 결혼, 아이비웨딩홀 △우진태 = 12월 20일 차남 결혼, 빌라드베일리 △이상흠 = 11월 29일 아들 결혼,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 △이재진 = 10월 2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허영형 = 11월 15일 장녀 결혼, 명동성당 △허택 = 치과의사, 소설집 '뫼의 소리들' 발간

<26회> △강대중 = 12월 6일 장남 결혼, 아모리스 강남 △김두천 = 11월 9일 장녀 결혼, 파티오나인 그레이스홀 △김진수 = 12월 7일 장남 결혼, 아이스퀘어호텔웨딩△김형국 = 11월 1일 차녀 결혼 △김희국 = 11월 23일 장남 결혼, 파티움성균관(구 유럽웨딩홀) △박철홍 = 12월 19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서기석 = 11월 18일 빙부상, 파주 천주교 평화묘원 △윤일중 = 12월 18일 빙모상, 양산장례식장 △정종훈 = 2015년 1월 10일 장녀 결혼, 호텔리츠캄튼서울 △황백 = 11월 28일 장남 결혼, 신라호텔(서울)

<27회> △강선조 = 10월 18일 아들 결혼, 연산동 제니스웨딩홀 △김강호 = 12월 21일 딸 결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김대룡 = 12월 12일 모친상, 구포 부민병원 △김성주 = 10월 11일 빙모상, 울산대학병원 △배기용 = 12월 27일 딸 결혼, 누리엔웨딩홀 △송인무 = 10월 11일 딸 결혼, 더 뷰 3층 웨딩홀 △양태종 = 12월 12일 빙부상, 초량 인창병원 △이인규 = 10월 12일 딸 결혼, 센텀 사이언스파크웨딩홀 △이정재 = 2015년 1월 17일 딸 결혼, 해운대 팰레드시즈

<28회> △권수봉 = 10월 18일 장녀 결혼, 분당 요한성당 △김대성 = 2015년 1월 18일 딸 결혼, 울산향교 명륜당 △김병철 = 11월 15일 장녀 결혼, 센텀사이언스파크 △김인진 = 12월 23일 빙부상, 분당서울대병원 △김준배 = 12월 1일 빙부상, 좋은강안병원



# 울산, 창원, 김해동창회도 '용마의 밤'

## 김해, 울산동창회, 신입회장 조광제, 전학명 동문 추대



김해지역동창회가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었다.



해마다 '용마의 밤'을 여는 창원지역동창회는 회원명부도 발간한다

본부동창회와 함께 울산, 창원, 김해지역 동창회도 일제히 '용마의 밤'을 열어 모교 사랑, 동창회 발전을 다짐하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울산지역동창회는 12월22일 울산롯데호텔 샤프테룸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겸해 '용마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배명철(28회, 경상일보 사장) 회장 후임으로 전학명(28회, 전학명치과의원 원장) 동문을 신입회장으로 추대했다.

부·울·경언론인클럽 활동을 위시해 본부동창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온 배명철 회장은 "용마가족들의 건승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결속할 것"을 강조하며 새 회장으로 추대된 전학명 동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학명 회장은 울산지역에서 명성이 높은 치과 개업의이다. 울산지역 동문들은 지난 6월 경남고를 방문한 바 있다.

해마다 '용마의 밤'을 통해 결집력을 과시해 온 창원지역 동창회는 12월9일 창원호텔에서 용마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용마의 밤'을 열고 모교발전과 동문발전을 위해 건배했다. 한원우(26회, 세원건설 대표이사)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에도 용마가족들은 두터운 우애로 상부상조해 왔다"고 강조하고 새해에는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동창회보 발간사업을 펼치며 활발하게 움직여

온 창원지역동창회는 10월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새해에 동문명부를 발간하기로 의결했다.

김해지역동창회도 12월10일 김해JW컨벤션에서 정기총회에 이어 '용마의 밤' 행사를 가졌다. 동문과 가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조광제(25회, 주왕건주류 부사장) 동문이 새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조광제 신입회장은 "더 자주, 더 많은 용마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신입 사무국장으로 김용진(36회, 그린코스 대표) 동문을 위촉했다. 김해지역동창회는 월례회 모임을 꾸준히 진행하며 조직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 등대회, 송정규 회장 추대 김무성 대표, 축전 보내 격려

해운항만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동문모임인 등대회는 12월4일 제41차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열고 '항만수도 부산'을 위해 용마가족들이 솔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는 김성권(24회, 성광물류 대표이사) 회장의 후임으로 한국도선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송정규(25회) 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성권 회장은 "부족한 저를 물심양

## 시카고에서도 송년회

### 중서부지역 가족 19명



미국 중서부지역에는 30여명의 동문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 중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동문과 가족들은 12월7일 시카고의 유명 한식 레스토랑인 '대장금'에서 지역동창회 모임을 갖고 동문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고 회포를 풀었다. 모두 19명이 참석한 이날 동창회에서는 강대철(20회) 회장의 후임으로 박영준(20회) 동문을 추대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 중서부지역에는 30여명의 동문이 거주하고 있다.



고 말했다.

송 신입회장도 "만나서 즐겁고 재미있는 조직, 참여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기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형제처럼,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24회) 동문은 이날 축전을 보내 "등대회의 도약과 항만수도 부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면으로 성원해 주신 선후배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히고 "등대회의 영광을 위해 송정규 신입회장을 적극 지원하자"

△리신호 = 12월 13일 장남 결혼, 청주 라마다호텔 △배선진 = 12월 20일 장남 결혼, 더베일리하우스 △안병직 = 11월 30일 빙모상, 강남성모병원△업호성 = 전 국회의원, 수사경찰발전동우회장 취임 △이명학 = 11월 15일 장남 결혼, 선한목자교회 △이재원 = 12월 11일 빙부상, 좋은강안병원 △이하백 = 11월 23일 장녀 결혼, 청주 아름다운웨딩홀△이희진 = 10월 18일 빙모상, 서울아산병원 △최광해 = 11월 29일 빙모상, 삼성의료원

<29외> △강인원 = 10월 24일 빙부상, 진주 경상대병원 △김영상 = 10월 26일 모친상, 서울삼성병원 △김한근 = 10월 7일 부친상, 부산시 BHS동래한서요양병원△김홍국 = 12월 26일 장녀 결혼, 천주교 논현2동성당 △김흥기 = 12월 6일 장녀 결혼, 강남 더라빌(구 웨딩의전당) △류광현 = 10월 12일 부친상, 동아대학병원 △박근우 = 12월 20일 장녀 결혼, 부산 롯데캐슬리움웨딩홀 △배현호 = 10월 17일 빙모상, 감천 중앙유병원 △안정홍 = 10월 11일 부친상, 괴정병원 △양성봉 = 10월 25일 부친상, 동국대 일산병원 △엄상현 = 11월 14일 빙부상, 전주 전북대학병원 △윤청용 = 12월 20일 아들 결혼, 자카르타 임마누엘교회 △이병건 = 9월 29일 빙부상, 온종합병원 △이병우 = 12월 1일 부친상, 일원동 삼성의료원 △이충원

= 11월 22일 빙모상, 서울 우신장례식장, 12월 31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장강태 = 12월 12일 빙모상, 대청동 중앙성당 △정종기 = 11월 23일 장남 결혼, 더뷰3층 더뷰홀 △제영권 = 12월 5일 모친상, 부천 성모병원 △현응열 = 11월 9일 모친상, 인창병원

<30외> △김명근 = 10월 8일 부친상, 동래 한서요양병원 △김찬석 = 10월 11일 부친상, 부산 보훈병원 △김종곤 = 11월 8일 자녀 결혼, 리츠칼호텔서울 △김현태 = 12월 21일 장녀 결혼, 남산성당 △노영범 = 12월 7일 차녀 결혼,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류규현 = 12월 27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박기형 = 12월 20일 장녀 결혼, 코모도호텔 △박일기 = 12월 27일 장녀 결혼, 뉴힐탑호텔 △박정태 = 9월 29일 부친상, 감전동 삼신병원 △박철우 = 12월 19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배성근 = 10월 21일 부친상, 부산 대동병원 △손보현 = 12월 2일 모친상, 주례 좋은삼신병원 △송치근 = 12월 6일 아들 결혼, 도림동성당 △이상무 = 11월 10일 빙모상, 동래 한서요양병원 △이희방 = 12월 1일 모친상, 강남 성모병원 △장무상 = 11월 22일 장녀 결혼, 서울대학교 엔지니어 하우스 라쿠치나 △장영조 = 2015년 1월 17일 장남 결혼, 서울 아모리스 강남 △장호영 = 10월 16일 빙부상, 마산의료원 △정성원 = 11월 29일 장녀 결혼, 파라다이스호텔 △

정태환 = 12월 22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31외> △김종호 = 12월 9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박영석 = 9월 29일 부친상, 부산 동의료원 △박준석 = 12월 15일 빙부상, 빙모상, 삼신전문장례식장 △서영호 = 11월 22일 장남 결혼,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경배 = 12월 6일 장남 결혼, 임페리얼팰리스 △故이상열 = 11월 22일 장남 결혼, 창원 리베라컨벤션 △전병규 = 10월 4일 딸 결혼, 대전 호텔ICC △정원규 = 12월 1일 빙부상, 동아대병원 △정인화 = 12월 15일 빙모상, 초량 인창병원 △조종철 = 11월 1일 모친상, 괴정병원 △조현우 = 10월 12일 장녀 결혼, 개금성당 △최해영 = 10월 26일 장녀 결혼, 롯데캐슬리움웨딩홀 △하광우 = 10월 12일 모친상, 서울 아산병원

<32외> △김종식 = 12월 2일 빙모상, 동래 대동병원 △이남규 = 10월 25일 장녀 결혼, 국제신문사빌딩 △서경호 = 10월 11일 차남 결혼, 센텀사이언스파크

<33외> △고제훈 = 12월 27일 빙모상, 제주 부민장례식장 △김법영 = 12월 21일 장남 결혼 △김홍균 = 11월 30일 딸 결혼, 김해 아이스케이 △남택은 = 9월 30일 빙모상, 광안리 서호병원 △박진우 = 11월 27일 빙부상, 마산의료원 △백광석 = 12월 24일

부친상, 감전동 삼신장례식장 △송인광 = 10월 27일 빙모상, 원자력병원 △이상수 = 12월 3일 빙부상, 세브란스병원 △이종원 = 10월 19일 딸 결혼, 센텀리더스웨딩홀 △최봉규 = 11월 7일 빙모상, 김해 중앙병원

<34외> △김주섭 = 10월 31일 빙모상, 부산전문장례식장 △박진영 = 11월 18일 빙모상, 부산의료원 △이권태 = 12월 16일 모친상, 위생병원 △이성열 = 12월 28일 모친상, 김해전문장례식장 △이재욱 = 12월 30일 빙부상, 삼성서울병원 △정국이 = 10월 14일 부친상, 서울의료원 △최기호 = 9월 27일 모친상, 부산대학병원 △한원일 = 9월 27일 장녀 결혼, 김해 아이스케이

<35외> △김병화 = 11월 22일 모친상, 광양시 가야장례식장 △정인철 = 11월 20일 빙부상, 범내골 시민장례식장

<38외> △강병균 = 11월 28일 빙모상, 한중프리임장례식장 △김판근 = 10월 28일 모친상, 부산 서호병원

<41외> △김종근 = 9월 26일 부친상, 초량 인창병원 △신동진 = 9월 30일 모친상, 울산 영락원

<56외> △김근재 = 10월 11일 본인 결혼, 범일동 더하우스웨딩홀



#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 막강 28회, 졸업40주년에 위용 과시

졸업 40주년을 기념하여 가진 28회 홈커밍 행사는 훈훈한 미담을 쏟아냈다. 부산동기회는 모교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고, 서울동기회는 2015학년도에 경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가을로 연기된 홈커밍 행사 참가동문들은 11월8일 오후 경남중고를 각각 방문하고 기념촬영을 한 뒤에 버스로 남향대교, 부산향대교, 광안대교 등 부산의 명물 대교를 경유하여 기념식 행사장인 해운대 그랜드호텔에 도착했다.

200여명의 동기가족이 동참한 기념식은 ‘은사소개’부터 열기를 뽐냈다. 이만수 추진위원장은 이날 최고의 귀빈으로 초빙된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독어의 달인 이종희’, ‘호동왕자 김호동’, ‘송세비오 송세열’, ‘정직의 대명사 허민호’ 등으로, 재학 당시의 별명을 직격 호칭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구영소 부산동기회장은 환영사에서 “쌍백선과 똥구두로 대변되던 청년들이 이제 귀털머리가 하얗게 되어 만났다”고 회고하고 “인간관계는 자동시계가 아니라, 수시로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라며 “오늘이 자리가 정이 오가는 소통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용원 서울동기회장도 인사에서 “40년 세월이 눈감쩍힐 사이에 흘렀다”면서 “그동안 사회활동 열심히 했고, 지



28회 졸업 40주년 행사에는 많은 은사들이 참석해 제자들의 사은례를 받았다.

금도 국가와 가정을 위해 뛰고 있다. 큰 가르침을 베푸신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 50주년 행사에도 은사님들 모두 모시고 고향 부산에서 또 한번 큰 행복을 누리자”고 말했다.

제자들의 칭송과 보은의 인사가 이어진 가운데 은사를 대표해 인사말을 한 전 경고 교장 이희문(6회) 동문은 “각계에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치하하고 “오늘부터 40년을 살아갈 계획을 세워라. 못다 이룬 일 성취하고, 좋은 일 더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건배를 제의한 이만수 동문은 “40년 세월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며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를 줄여 ‘청바지’를 구호로 건배했다.

축사에 나선 남진현(19회) 본부 상임부회장은 “28회는 43개 기수의 후배를 거느리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활력소가 되

고 반석과 같은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중에 참석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경고 출신 시장으로서 흠결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도움과 자문을 아끼지 않는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 부회장은 허범도 회장을 대리해서 이만수, 구영소, 김용원, 조광제 동문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구영소, 김용원 회장은 각각 서강태(30회) 경고 교장과 이요섭(27회) 경중 교장에게 운영비 300만원을 기탁했다.

방송인 김경진(44회)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잔치에는 초대기수의 공연과 동기가족들의 다양한 장기가 쏟아지는 등으로 시종 흥겨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튿날 이기대 들레길을 관광하고 민락동 싱싱횃집에서 오찬을 나눈 뒤, 아쉬움을 남긴 채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 덕형리그 폐막, 29회 우승



모교 야구전통을 이어가고 후배 선수들을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경남중고야구연맹 덕형리그 2014년 시리즈가 폐막되었다.

12월6일 모교 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29회가 33회를 누르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3위는 36회와 40회가 차지했다. 현 응렬(29회) 동문이 최우수선수에 뽑혔고, 모교 야구부를 창설하고 초대감독을 지낸, 장종기 용의 둘째아들인 장현경(29회) 동문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감독상은 이충원(29회), 타격상은 임창섭(36회), 감투상은 정성우(33회), 미기상은 박근보(33회)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2000년 정월에 창단된 경남중고야구연맹 덕형리그에는 8개 기수(28, 29, 33, 34, 36, 37, 40, 41회)가 참가하고 있다. 매월 첫째 토요일에 경기를 가지며, 신태양건설 회장인 박상호(26회) 고문이 후원하고 있다.

## 언론인클럽 송년회



언론사 재직동문 모임인 부·울·경언론인클럽(회장: 이만수, 28회)은 12월15일 민락동 싱싱횃집에서 월례회를 겸한 송년모임을 가지고 새해에도 언론장담과 친목강화,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기로 했다.

박성철(29회, 변호사) 회장은 “이탈다할 달없이 한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동문들의 덕분”이라고 말하고 새해에는 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산행을 마친 뒤에 가진 납회식에서는 2014년 4차례 산행에 가장 많은 동기가족이 참여한 37회에게 동창회장기를 수여했다. 참가기록 2위는 35회, 3위는 29회가 차지했다.

## ‘모교발전, 원도심 재건’ 건배

### 중부산지역동창회 총회 겸 송년회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부산지역동창회는 11월9일 압남공원 갈매길을 걷는 제4회 산행대회를 갖고 푸짐하게 마련된 오찬잔치를 벌였다.

중부산지역동창회는 11월27일 자갈치 오아제뷔페에서 1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부산 원도심을 재건하는데 용마가족들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철호(24회) 회장은 “모교가 소재하는 중부산지역 동문들이 더욱 단합해 모교발전은 물론, 부산시 원도심의 영광을 되찾는데 기여하자”고 말했다. 박극제(24회) 서구청장도 축사에서 “경남중고가 관할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모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중부산지역 동문들의 성

## 기독교동문회, ‘만남의 밤’ 강형식(26회) 목사 신앙간증

기독교인 모임인 기독교동문회(회장:최현림, 25회)는 11월6일 협성뷔페에서 ‘만남의 밤’ 행사를 가졌다.

동문과 가족, 모교 재학생 등 100여명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때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으로 더 잘 알려진, 예인교회 목사 강형식(26회) 동문이 신앙간증을 했다. 또 강 목사가 마미 9군 무대 등에서 활동한 연주자들을 초빙해 만든 ‘베오블로 뮤지컬’이 특별연주를 했다.



## 용마산악회 갑오년 납회

용마산악회는 12월14일 경주 남산에서 납회산행을 가졌다.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정기산행을 실시해 온 용마산악회는 이날 동문과 가족 등 100여 명이 동행한 가운데 남산을 등반하고 갑오년을 납회했다.



용마산악회가 경주 남산으로 납회산행을 했다. 올해 가장 많이 참가한 37회가 회장기를 받았다.



# 어울림한마당, '가을의 전설' 연출

## '단합의 기수 31회' 금정산 산행, '야단법석' 뒤풀이



매사에 뜻을 뭉쳐서 막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31회 동기회는 부부동반 참석을 원칙으로 해서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부산의 동서남북으로 동기회 지회를 두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합의 기수' 31회 동기회의 '2014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10월 19일, 금정산 등정과 화려한 연회를 곁들여 멋드러진 '야단법석'을 연출했다.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가을행사로 미뤄 치렀으나 특유의 결속력을 발휘해 이른바 '가을의 전설'을 또 탄생시켰다. 활짝 개인 가을하늘이 펼쳐진 범어사 주차장에서 반갑게 해후한 동기생 70여명은 산행대장 최주홍 동기의 안내로 금정산을 산행했다. 부부동반으로 참가한 동기생들은 삼삼오오 어울려 우애를 다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계명봉을 등정했다.

단합대회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이병태 회장은 "보고싶은 친구들과 어울렸으니 오늘 하루 시름을 떨치고 즐거운 축제에 빠져보자"고 분위기를 돋우고 행사준비에 수고한 손영태 고문과 오호철 사무국장 및 실시반으로 협찬해준 동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이들은 지부대항 족구시합과 부인들이 펼친 제기차기도 즐겼는데, 족구경기는 북부지회가 우승했고, 허일현 동기의 부인이 제기차기에서 1등을 차지해 각각 상금과 부상을 받았다. 푸짐한 상품이 걸린 경품추첨에서는 김부영 동기가 대상을 차지해 80만원어치 상품권 대박을 맞았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공연무대에는 '바다새' 멤버 가수 김혜정 씨가 초청돼 화끈한 노래 한마당을 펼쳤고, 용마코스 최현성(45회) 조성빈(47회) 동문은 여성 초대 가수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또 바쁜 일정을 쫓아 참석한 고성군수 하학렬 동기를 비롯해 서울에서 내려온 조성제, 심재구 동기가 자리를 빛냈다.

올해 어울림 한마당에는 이병태 회장과 손영태 고문이 각각 200만원을 찬조하고, 본부부회장 류명석 동기가 고급 와이셔츠 100벌을, 용마회집 대표 오용환 동기가 생선회 100인분을 협찬했으며, 홍성수, 오민일, 정주영, 박종호, 이민재 동기를 포함해 35명이 찬조금 1500만원과 다양한 협찬품을 출연했다.

### 부음

- ▶ 박한복(9회)=9월 2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신생의원 원장으로 의료활동을 펼쳤다. 녹십자 사장을 거쳐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로 있는 이병건(29회) 동문의 장인이다.
- ▶ 유봉만(9회)=2015년 1월 8일 별세했다.
- ▶ 임종조(9회)=7월 27일 별세했다.
- ▶ 장병국(9회)=12월 8일 별세했다.
- ▶ 조규일(10회)=11월 2일 별세했다. 고인은 광운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문과대 학장을 역임했다.
- ▶ 김춘길(13회)=11월 2일 해운대백병원에서 별세했다.
- ▶ 장병길(13회)=8월 3일 별세했다.
- ▶ 장영(13회)=7월 2일 동아대병원에서 별세했다.
- ▶ 허종철(13회)=11월 23일 고려대안산병원에서 별세했다. 하나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 ▶ 박찬배(14회)=1월 6일 별세했다.
- ▶ 조보근(14회)=9월 25일 부천순천향병원에서 급환으로 별세했다. 수산대(현 부경대) 어과과를 졸업한 고인은 원양어선 선장으로 오랫동안 오대양을 누비며 원양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원양어업협회 고문이며, 타계하기 석달 전까지도 포클랜드에 주재하며 오징어채취기 선단을 지휘한 원양어업계의 거인이었다.
- ▶ 김시영(17회)=10월 28일 동아대병원에서 별세했다.
- ▶ 서용수(19회)=11월 20일 서울대분당병원에서 별세했다.
- ▶ 조순제(19회)=11월 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고인은 주독일대사관 상무관을 지냈다.
- ▶ 이현재(24회)=1월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오랫동안 해운항만업계에 종사했으며, 경성대 산학협력 교수로도 일했다.
- ▶ 조병철(24회)=11월 1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81년 경향신문사에 입사, 왕성한 필력으로 정치부 기자 활동을 오래했다. 1999년 세계일보로 옮겨 정치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주필을 역임했다. 주필 재직 시절인 2009년에 칼럼부문 한국잡언론인대상을 수상했다.
- ▶ 김재홍(25회)=10월 2일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별세했다.
- ▶ 김기원(26회)=12월 7일 강남성모병원에서 급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 ▶ 김태원(29회)=1월 5일 사하구 경희병원에서 급환으로 별세했다.
- ▶ 홍재기(34회)=12월 30일 중앙U병원에서 별세했다.



## "흠련은 최선을 다해 얻는 것"

박극제 구청장, 경남중 3학년 특강



특강을 마친 박극제 동문이 이연옥 교감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박극제(24회) 서구청장이 모교 경남중 3학년 재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다. 지난 12월 16일 모교 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박 구청장은 중학교 진학마저 포

기해야 했던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영원한 꼴찌도 없고, 영원한 1등도 없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 동문은 마라톤 경기와 프로야구 이대호 동문의 성공 사례를 다양한 시각 자료를 곁들여 풀어내 재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였다. 그는 고입을 앞둔 3학년들에게 "마라톤 레이스에서 70%를 달려왔으며 30%가 남았다.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과의 싸움에

반드시 이겨 완주하라"고 격려했다.

박 동문은 어릴 적에 연탄배달도 했던 이대호 동문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진함으로써 연봉 1백억 원의 거인으로 태어났다"며 "흠련은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구의 타율 3할은 좋은 기록이긴 하지만, 7할은 헛방이라는 뜻"이라며 "인생에서 좌절, 실패, 분노, 수치 등은 기본이며,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보약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자"고 역설했다.

박 동문은 후배들의 질문도 받고,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

관할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모교 발전에도 관심이 많은 박극제 구청장은 경남중 후배들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400만원을 지원했다. 기획력이 뛰어난 박 동문은 이대석 동문 생가복원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남부민동 일대를 재정비하여 이대석 동문 생가 일원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꾸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뛰어난 전략은 수준높은  
Creative로 빛을 발합니다.

- 광고기획 및 편집, 일본어 편집 전문
- 마케팅리서치, 매체대행, SP, CI, BI, PI
- 명함, 소·대봉투각종 서식, 전단, 팜플렛카드, 리플릿, 브로슈어, 선거홍보물 제작
- 개인·동인지, 시·수필집 출판, 자서전 출간 전문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44번길 14(부평동3가)  
T. 051.245.2337 F. 051.245.2334  
E-mail. shine63@nate.com



인물 포커스 / 두 번째 소설집 낸 치과의사 허택 동문

# “고령화 시대에 작은 버팀목이 되었으면”



허택 동문의 선친인 허태운 박사는 부산으로 피난 나와 평화치과를 개원했다.

허택의 소설에는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 담겨 있다. 숨김없는 필치로 그려진 현실 앞에 우리들의 누추한 행태는 백 일하에 까발려진다. 이것이 나와 내 이웃의 실상이었구나.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이었구나. 뚜렷한 윤곽으로 나타난 모습이 추워서, 삶은 차라리 죽음과도 같다. 그 결과, 우리는 소설의 대부분에서 병원 풍경 앞에 서게 되고 막다른 길에 이르러야 한다. 그 마지막 풍경들 앞으로 생로병사의 전막(전막)이 펼쳐진다. 작가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이르게 되는 그곳에 작가가 간곡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괴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죽음은 무엇인가, 또한 삶은 무엇인가. <소설가 윤후명>

음인지, 그의 집안에는 치과 의사가 여러 명이나 된다. 선친인 허태운 박사는 서울대 치대 교수 재직중에 육이오전쟁을 맞아 부산으로 피난 왔고, 옛 부산시청 곁에 있었던, 제5육군병원 치과 군의관으로 종군했다. 그런데 서울이 수복되고 휴전도 선포되었지만, 허 교수는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다. 육군과 부산이 한사코 '불드는' 바람에 서울대 교수직 복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허 교수가 대학에 복직했더라면, 허택은 지금 그 대학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서울대 치대 조교 노릇도 이수한 예비 교수 요원이었으므로. 중령으로 예편한 허태운 박사는 1956년 9월, 부평동시장 한가운데에 '평화치과의원'을 개원했다. 바로 그 자리, 그 '평화치과'가 여태까지 허 동문이 진료를 펼치는 곳이다. 1982년 해군 군의관에서 전역한 그는, 선친의 '귀환 명령'을 받고, 선친과 함께 이곳에서 개업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때마침 개설한 부산대 치대 강사로 10년쯤 출강하기도 했다.

평화치과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치과의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광복동에 있는 김치과의원이 가장 오래된 곳인데, 그곳 원장은 김학대(13회) 동문이다. 두 곳 모두 선대가 개설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고, 그래서 '역사와 전통'에 견주어 규모는 매우 왜소하다. 하루 종일 붐비는 환자와 진료 공간을 따져보면, 평화치과는 환자 서비스가 말이 아니다. 물론 좁은 자리에 비집고 앉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허택 원장은 늘 미안해한다. 그 럽에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선친과 황해도 동향인 모친 박종숙 여사가 '확장 이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아흔셋인 모친은 애로라지 평화치과 2층을 '고집하시며' 강고하게 국제시장을 '지키고' 있다. 그곳에 드리워진 '사랑의 그림자'는 또 어떤 추억들을 불러들이는 걸까?

“거침없이 그려낸 서글픈 자화상” 국제신문 임은정 기사는 허 동문의 <몸의 소리들>을 일러 “60대가 그려낸 젊은 감각이다. 자유분방한 필치로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거침없이 그려내면서 서글픈 우리의 자화

상을 들여다보게 한다”고 평한다. 양진채 작가는 “오로지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에 복무하는 소설 속 인물들은 원시림을 헤치고 나가는 돌도끼를 든 사내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욕망이 이렇게나 순정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동기생인 극작 연출가 이윤택 동문은 “허택은 두 번째 소설집을 통해 분명한 자신만의 작가 세계를 구축한 듯 보인다. 그 세계는 지금까지의 한국문학에서 보여준 고답적이거나 정관적인 ‘늙어감의 미학’과 궤를 달리하는, 추학(醜學)-성과 속의 적나라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노골적이고, 그만큼 삶의 본성에 가까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늙어가는 남성들은 가능하면 아름답고 의연하게 늙어가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숨은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실에 초연한 듯, 인간에 초탈한 듯, 너스레를 떨면서 늙어감의 미학을 찬양한다. 작가 허택의 시선에 의하면, 이야말로 얼마나 가증스런 위선이며 스스로의 욕망을 거세하는 패배주의인가”라며 “허택의 선택은 놀랍게도 끝까지 세속화된 세계 속에 자신을 던져 놓아주는 짓거리이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00면)

허 동문은 “육체와 정신의 합체를 생리학적으로 소설 속에 형상화하면서, 두 번째 소설집이 고령화 시대에 작은 버팀목”이라도 되길 바라면서 “한 작품, 한 작품 초심으로 돌아가서 겨우 만들어 나갔다”고 털어놓았다. “아직도 탐욕과 진에(진에)로 괴로워하는 자신”을 느끼며 고민과 갈등이 겹쳤으며 “세월의 뼈를 두려워 절필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바쁜 사람이다. 오후 6시까지 꼬박 진료에 매달려야 하고, 부산은 물론이고 서울 등지에서까지 부르는 이런저런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는 데다가 청탁받은 원고도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에 쫓겨 소재도 다양하게, 감각도 젊게 유지하려 애를 썼지만 부족한 게 많다”고 말한다.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글을 쓴다는 그는 “나름의 색깔을 띠고 싶어 내 전문성을 글에 녹이는 것도 좋겠다 싶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결혼, 출생 등에 대한 생리학적 거부감을 소설로 풀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이자 소설가인 허택(26회) 동문이 두 번째 작품집 <몸의 소리들>(강 출판사)을 펴냈다. 지난 2011년에 첫 번째 소설집 <리브 앤 다이>를 상재한 지 꼭 3년만이다.

허택 동문은 부산 문단에서 진작에 “저토록 중량감 있는 신진이 언제 정식 등단 통과 의례를 치르고, 언제쯤 첫 작품집을 낼까?” 하는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가 2008년 이육고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을 때 “무척 오랜만에 부산 문단에 나타난 목직한 신인”이라는 특별한 평을 들은 바 있다.

등단 연도와 첫 작품집 간행 시기를 중심으로 작가의 연륜을 따지는 관행이 여전한 문단에서, 늦깎이에다 치과의사가 본업이고 보니 그를 주목하는 시선은 비상할 수밖에 없었거니와, 뚜렷한 중량감 덕분에 ‘신진’이라는 딱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그가 없는 부산 소설계는 ‘양고 없는 찐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택 동문은 ‘똥구루’ 시절부터 문학 전공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선친의 소망을 거부할 수 없어서 서울대 치대로 진학했다. 선친의 열망이 주효했

참치 사랑



(051) **256.3737**




대표

**유 법 권 (43회)**  
010.3860.8497

**구 자 삼 (45회)**  
010.4913.9432



# 슐츠 선생, 「무신과 문신」 출간

## 고려로 무신정권 재해석, '신선한 관점' 주목



슐츠 선생의 고려사 사관은 학계의 관점에 경종을 울린다.

1960년대 후반 모교에서 영어회화를 담당했던 에드워드 슐츠 선생의 저서 「무신과 문신」이 국내외 학계에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서강대 교환교수로 내한한 그는 지난 봄 동창회보 편집자를 만난 자리에서 고려 무신정권에 대한 저서를 국내에서 출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신정권 연구서의 제목에 '문신'이 대등한 무게로 등장하는 것이 암시하듯이, 저자는 기존의 통설을 거부하고 무신

정권 100년사에서 '문무공생'의 고리를 탐구하여 고려사를 새롭게 서술하고 있다. 곧 연구자들 사이에서 무신 집권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으며,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100여 년은 역사 속에서 부패하고 퇴보한 암흑기로 취급되었다. 이처럼 무신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은 학문적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슐츠 선생은 12세기 고려를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한다. 일본 막부제도의 원형인 동시에 우리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정치적, 군사적 체제에 주목한다. 특히 사병(私兵)과 사적 통치기구 등 다양한 통치 형태의 실험은 중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다만, 일본의 경우는 중국과 다른 전통을 계속 실험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갔는데 견주어, 한국은 끝내 중국의 모형으로 되돌아간 것을 아쉬워한다.

UCLA 존 덩컨 교수는 "논쟁적 시기에 대한 철저하고 종합적인 연구이며, 이시기의 발전이 이후 정치, 사회, 제도사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신선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슐츠 선생은 "고려는 불교와 유교를 함께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전통마저 한데 융합한, 특유의 다원주의 문화국가"라는 지문을 펼친다. 외래문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인 뒤에 토착적인 요소와 잘 버무려 업그레이드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고려 예찬론'을 설파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고려시대는 잊혀진 역사 같아서 아쉽다고 했다.

이미 한국학 권위자로서 학문적 위상을 확고하게 굳힌 슐츠 선생은 동창회보에 밝힌 바대로 <고려사절요>를 영역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오거돈(21회) 부산대 해양연구소 석좌교수



본부동창회 직전회장 오거돈 동문이 석좌교수로 부산대 강단에 선다. 부산대 총장 김기섭(30회) 동문은 지난 11월3일 오 동문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오 동문은 앞으로 2년간 부산대 해양연구소에서 해양수산, 해양환경 등 해양 관련 연구 및 사업 활성화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자문 역할을 맡고, 연구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 등도 가질 예정이다.

오 동문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산시 정무, 행정부시장, 시장권대행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대 총장, 세계해양대학총장협의회 의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를 역임했다.

## NEWS 동문동정

### 이환균(14회) 창원시 균형발전위원장



이환균 동문이 지난 11월3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창원 마산 진해 간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할 소임을 맡은 이 동문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이 동문은 건설교통부 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역임한 뒤, 인천 송도신도시

건설을 지휘했으며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이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도 이바지했다.

### 김도훈(15회) <조용한 식탁> 연출



정통연극을 고집하는 극단 '뿌리' 대표 김도훈 동문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초청을 받아 서울 동숭동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연극 <조용한 식탁>을 무대

에 올렸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7개국 19개 단체의 연극 및 무용 21편이 공연되었다. <

조용한 식탁>은 국내 초청장으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지난 2011년 연극계의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김 동문은 당시의 출연 배우들을 이번에도 다시 무대에 올렸다.

창단 38주년을 맞은 극단 '뿌리' 대표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동문은 서울연출가그룹 회장, 거창국제연극제 및 영호남연극제 조직위원장, 동아방송예술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한국연극예술상, 서울연극제 대상, 예총예술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 임경범(21회) 부산교통공사 이사



임경범 동문이 부산교통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

부산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해운회사에서 쌓은 경륜을 토대로 국제복합운송업체인 세계통상(주)을 경영하면서 부산무역협회와 동서대(겸임교수)에서 10여년 간 운송업무 강의를 했다. 해운회사 재직 시절에 해양수산 직능동창회인 '등대회' 창립을 주도했다.

### 이현곤(26회)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전 부소장 이현곤 동문이 제22대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현곤 동문은 취임사에서 "고객인 군이 100% 만족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무결점의 완벽한 군수품 획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히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 선진화의 주역이 되도록 미래를 향한 변화와 혁신의 경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이 동문은 영국 사우샘프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 제3기술연구 본부장과 부소장을 거쳐 지난 7월부터 국방연구개발 자문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이 동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당시, 합정 해양기술 개발분야를 이끈 우리나라 대표적 무기체계 전문가로 꼽힌다.

### 석문식(24회) 해양과학기술원 이전사무소장



석문식 동문이 12월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이전 추진사무소장으로 부임했다. 추진사무소는 한국해양대 구내에 설치되었다. 석 동문의 부임에 따라 이

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부산 이전 작업의 대미를 장식할 해양과학기술원 이전은 안산시에 있는 기존 청사 매각이 18차례나 유찰되는 등으로 공사비 확보에 혼선을 빚어 왔다. 이처럼 이전 작업이 지연되자 영도구가 지역구인 김무성(24회) 한나라당 대표가 기획재정부에 긴급 지원을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추진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들어설 새 청사는 2016년 5월에 착공해 2017년 9월경에 입주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원활한 청사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이동호(25회) 서울아산병원 교수 복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초대단장 이동호 동문이 임기 만료에 따라 본래 소속인 서울아산병원으로 복귀한다.

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 교수로 있던 이 동문은 재경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신약개발 강국을 모토로 개발사업단이 발족하면서 초대단장에 취임했다. 사업단은 지난 3년 동안 글로벌 라이선싱을 포함한 6건의 라이선싱 기술이전역과 마일스톤 특허등록 등 관련 사업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 "싸움소의 슬픈 눈에서 우리네 삶을..." 언론인 성한표 동문, 첫 사진전 '황소'



성한표 동문은 75년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언론인이다.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지낸 성한표(15회) 동문이 사진전을 열었다. 지난 10월 서울 통의동 갤러리 메타포에서 열린 성 동문 사진전의 타이틀은 <황소>.

경남 진주 출신인 성 동문은 지난해 가을 진주에 들른 길에 소싸움을 구경하면서 카메라에 담다가 "소에게서 표정을 발견했다. 어질다고만 알았던 소의 눈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면서 사진전을 열게 된 사연을 밝혔다.

충북 음성 도축장에서 죽음을 앞둔 소의 눈에 맺힌 눈물을 포착하는 등 1년 동안 찾아다니는 소의 표정 26점을 첫 개인전에 선을 보였다. 그는 "소싸움에서 이겨야 도축장에 끌려가지 않는다. 싸움소

의 슬픈 눈을 보면서 우리네 삶을 떠올렸다. 오늘은 간신히 이겼지만 언제 더 강한 상대에 밀려날지 모른다"면서 후배들에게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성 동문은 1969년 조선일보 기자로 입사했으나 75년 자유언론실천선언으로 해직된 뒤, 88년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해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주간 등을 지냈으며 SBS에서 7년간 뉴스비평을 진행한 바 있다.



진주 출신 성 동문은 1년간 '소'에 매달렸다





# '부산' 이 주목한 거인

## 젊은 용마 김태용, 시네마 천국으로 비상하다 모교 재학시절 디지털 카메라로 영화 제작해



김태용 동문은 모교 재학 시절에 디지털 카메라로 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칸 영화제가 발견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주목한 '속 깊은 이야기꾼'.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꾼'은 평론가들이 최근에 붙여준 영화감독 김태용(60회) 동문의 새 별명이다. 올해 스물여덟인 젊은 감독에게 보내는 찬사 치고도 여간 묵직한 게 아니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었던 <거인>은 영화제가 개막하기 전부터 주목할 작품으로 꼽힐 만큼 김 동문의 재능은 이미 총무로 바닥에서도 인정한다.

모교 재학 시절에 그의 첫 시도였던 <바람이 분다>를 촬영해 주위를 놀라게 한 김 동문은 세종대 영화예술과에 진학하면서 군계일학의 면모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작품으로 꼽히는 단편영화 <얼어붙은 땅>은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만든 것인데 "욕망과 윤리의 경계에 선 소년의 감동이 날것 그대로 살아난 작품"이라는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국내 최연소 감독으로 칸 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에 진출했다.

또한 한국영화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속 깊은 이야기와 남다른 시선의 연출력을 보여 주었다는 평판을 받으며 전주국제영화제와 미장센영화제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내놓아 특출한 재능을 일찌감치 각인시켰다. 제10회 미장센영화제에서는 사회적인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김 감독은 올해 <인생은 세움지마> <원나잇 온리>와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 <서울연애>를 극장 개봉한 데 이어 영화팬들이 날자만 학수고대 했던 <거인>까지 개봉함으로써 대중적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거인>은 12월22일 현재 관객 23,000명을 돌파하고 흥런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거인>은 무책임하고 구역질나는 부모를 떠나 보호시설에서 자란 열일곱 소년 '영재'(최우식 분)의 눈물겨운 인생을 통해 차마 버릴 수 없는 가족, 무지무지하게 아픈 청년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마음을 절절히 그렸다"고 평가하고 소개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의 상당 부분이 실화라는 것.

"영화 주인공이 열일곱살인데, 그 무렵 내 삶을 얹게 썰어 영화로 압축했다. 실제로 그런 곳에 살았고, 집에 돌아가기 싫어 신부가 되려고도 했었다. 과연 주인공이 버티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상상하며 뒤의 이야기를 추가로 만들었다."

김 동문은 고향 부산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립하는 토양이라고 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본 유럽 예술영화들이 시사하는 바에 주목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사회와 소재를 다루는 유럽 영화를 많이 보았다. 그걸 우리 식으로 변주할 때, 어떤 느낌으로 완성할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영화계는 장차 그가 상업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벌써 궁금해한다. 현재 김 감독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선생과 제자의 위험한 사랑을 다룬, 이름하여 <여교사>라는데, 그의 작은 몸피에서 솟아나는 폭발적 에너지를 기대하는 여망이 자못 팽팽하다. 청마의 해가 발굴한 '거인 김태용'의 무한질주는 이미 시작된 듯하다.

# 온화했던 '4회 천재'

## 동창회의 산증인, 故 문택상 동문



지난 11월 14일 작고한 전 재경동창회장 평암 문택상(4회) 동문은 동기들 사이에서 '천재'로 일컬어질 만큼 수재였다. 또한 새로운 것을 끊임 없이 찾고 노력하는 위인이었다. 그

래서 고인은 다양한 재능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다. 뒤늦게 배운 서예와 그림 솜씨가 전문가가 뽐친다는 찬사를 들었다. 고인은 최근까지 재경동창회보 <용마>에 신년 휘호를 보내오기도 했다.

여든이 넘어서 피아노에 도전하려 했던 일화는 '노익장'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했다. 부산의 한 문화계 노장층 인사들이 자신들 모임의 명칭을 '청년(청년)'에 대비해 '청추회(청추회)'로 명명한 '기개'를 떠올리게 한다. 고인은 "푸른 가을을 마음껏 누린 셈이다."

지인들은 고인을 천재적 재능의 소유자로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고인의 후덕하고 자상한 인품을 흠모했다. 문 동문은 일찍이 재경동창회 회장에 추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4회 동기회 회장을 10년 넘게 맡을 만큼 헌신적이었다.

특히 동기회장 시절, 고인은 손수 편집, 제작한 동기회보를 다달이 보냄으로써 끈기와 정성, 그리고 인간성을 탄복하게 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4회 동기생 이형 동문은 자신도 글을 써 생업을 삼아온 처지이지만 "매달 보내오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멈출 줄 모르는 의욕과 정성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회고한다. 이형 동문은 고인을 일러 "우리의 자랑이었다"고 말한다.

고인은 평생 동창회를 놓지 않았다. 재경동창회 고문으로서 동문 간의 우애와 친목을 고양하였고, 전통을 계승할 동창회의 위상을 선양하였다. 모교와 동창회의 산증인이 떠난 자리가 너무 크고 험한 것은 그런 까닭이라 할 것이다.

### 김민기(27회) 서울브랜드추진위원장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민기 동문이 서울브랜드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는 서울시민과 세계인이 사랑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서울시가 관련 전문가 22명을 위촉한 기구이다.

김 동문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 의장, 한국에이티브이연맹 회장,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 구영소(28회) 아시아드CC 대표이사



구영소 동문이 12월30일 부산관광개발(주) 주주총회에서 제6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부산관광개발(주)은 부산시가 지분 48%를 보유

한 출자기관이다. 주총은 구 동문이 탁월한 경영능력의 소

유자이자 조직관리와 회원관리 전문가로서 대표이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구 동문은 서강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인사관리와 대외협력 업무 경륜을 쌓았고, 20년 전 백양주유소를 설립해 최우수 경영 주유소로 선정되는 등 기량을 인정받아 왔다. 한국주유소협회 부산시회장을 9년 간 역임했다.

### 강현철(36회) 부산지방노동위원장



강현철 동문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강 동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노사관계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양산고용노동지청장,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을 거쳐 주중국 대사관 1등 서기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과장, 서비스산업예방법정당 등을 지냈다.

### 조경태(40회) 2014 우수의정활동상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선정한 2014 우수의정활동상을



받았다. 조 동문은 "국회의 원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고민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 동문은 부산 사하을 선거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으로 지역주의 구도를 깨는 데 앞장선 정치인으로 꼽힌다.

### 박종현(50회) 교육부장관상 수상



컨트롤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종현 동문이 중소기업청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수여하는 '2014 청년기업인상'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동문은 열악한 제조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코드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발휘해 '국가대표' 청년기업가로 꼽혀 왔다. 세계 최초로 6축 제어 엑스레이 자동화 검사장비를 개발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산시장상을 비롯해 부산상의회장상, 부산테크노파크센터장상을 받았다.

代表 金 佶 秀(25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 390번지 양정꽃시장 4층13호

TEL : (051)868-4601-2  
FAX : (051)868-4603  
H·P : 010-4552-7272



# ‘인생은 마라톤’, 사제가 함께 뛰었다

## 부산마라톤대회, 교사 3명 등 99명 참가 완주해 땀으로 소통하는 참교육 실천, 최다 참가상 받아



완주한 후배들이 받은 기념 메달

지난 11월9일, 다대포해수욕장을 출발해 벌인 제16회 부산마라톤대회에 경남교 교사 3명과 재학생 96명이 함께 레이스를 펼쳐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단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심중섭, 전경희, 조순미 교사는 제자들과 나란히 달리며, 땀 흘리는 보람으로 소통하는, 참교육을 실천했다. 또한 대회장에는 서강태 교장과 백영선 교감을 비롯해서 김동진, 노태현, 박길영, 김소정 교사들도 휴일 안식을 포기하고 나와서 제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서 교장은 참가 학생

들의 배변을 일일이 닦아 주었으며, 백 교감은 학생들의 손을 잡고 완주를 독려했다.

하프코스에 도전한 1학년 8반 급우들은 ‘응당이’라는 이색적인 팀 이름을 내걸어 이채를 띄웠는데, 팀장을 맡은 정다훈 군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땀 수 있어서 더 뜻이 깊었다”면서 마라톤으로 다진 우정을 과시했다. 정다훈 팀장의 제안으로 함께 달린 학생들도 한결같이 “함께 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며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완주 메달이 더 없이 소중한게 다가온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서강태 교장도 “참가 학생들의 교우 관계가 좋아지고 학습 태도에도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모교는 1만 명 가까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다 참가상을 받았다. 한편 부산시장 서병수 동문도 이날 내빈으로 참석해 시민 마라토너들을 격려했다.

# 경고, 롯데기 우승 맛보다

## 전국체전에서는 동메달 따내며 선전



모교 야구부가 부산울산고야구대회에서 부산고를 꺾고 우승했다.

경남고야구부가 모처럼 우승을 맛보았다. 모교 야구부는 지난 11월22일 사직야구장에서 벌어진 제3회 롯데기 부산울산고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맞수 부산고를 7대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결승전에서 5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한 조준형 선수에게 돌아갔다.

경남고는 3회 초, 2루타 나간 선두타자 김찬형을 안정민의 보내기 번트로 진루시킨 뒤, 투수 강습 적시타 선취점을 뽑아내고, 공세를 늦추지 않으며 임상벽과 최종혁의 2루타와 문상인의 내야 안타, 부산고의 폭투에 3점을 추가해 경기를 리드했다.

3회까지 패투하던 선발 이승호 투수가 4회 말에 들어 난조를 보이면서 5대3으로 추

격을 당하자 모교는 신민준을 구원으로 투입, 무사 동점 주자를 둔 위기를 깔끔하게 틀어막았다. 모교는 7회 초에 2점을 더 뽑아 승부를 결정지었다. 신민준 선수는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타격상은 결승전 선취점을 올린 김찬형 선수가 차지했고 안정민 선수는 도루상을 받았다.

한편 모교 야구부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95회 전국체전에서 선전을 펼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북 군산상고와 전남 효천고를 따돌리고 3회전에 진출한 모교는 전국체전의 강호 충남 북일고에 패해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2012년까지 체전 3년패를 기록한 북일고는 이번에 또 광주제일고를 9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 “그래, 우린 미생이 아니야!”

## 모교 바둑반, 이기섭 사범 지도로 연착륙 엿보여



모교 바둑동아리 지도사범인 이기섭 프로 7단은 ‘바둑의 이치를 깨우치면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둑심화반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면 뜻 있는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모교 신관 3층 상담실에는 연습생 장그래들이 모여든다. 바둑심화반의 예비기사 20여명이 바둑공부를 하는 날이다. 지도사범은 프로 7단 이기섭 기사.

두 학기 동안 시험적으로 진행된 바둑심화반의 중간평가는 일단 양호하다. 지도교사 박빈 교사는 “단순한 호기심만 갖고 찾아온 학생들도 흥미를 더해가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망을 낙관했다.

물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기섭 사범의 지도력에 근거한다. 박빈 교사는 “전문기사가 제대로 지도하므로 초입자들도 기초를 익히며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더욱 관심도를 높인다”고 풀이했다.

바둑심화반은 용마바둑회장 김대욱(29회) 동문이 제안하고, 운영 경비로 500만원을 쾌척하면서 출범했다. 특히 흔치 않은 고등학교 바둑반의 사범으로 저명한 프로기사를 초빙할 수 있었던 것도 김대욱 회장의 작품이다. 이기섭 사범과의 인연은 김대욱 회장이 서울대 공대 재학 시절 하숙집에서 시작하여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기섭 사범은 일찍이 한국기원 서면봉원을 개설하기도 한 부산바둑계의 대물보이다.

“초등학교 때 조금 배운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완전 입문자들이다. 이들에

게 한 주일에 2시간여 가르치는 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도 귀한 시간이므로 잘 활용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기섭 사범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맞지 않으면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면서 “위기십결(圍棋十訣)이 가르치듯이, 바둑의 이치, 나아가 그 길을 깨우치면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교육적 효과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런데 바둑심화반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아직 투명하지 않다. 바둑교실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운영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강태 교장은 “바둑반 전용공간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혀 일단 지속가능성은 열려 있어도, 전용공간의 집기류 구비와 운영 경비 확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 SBS 논설위원 신병식(24회) 동문 등 아마 고수 동문 일부가 협찬 방안 등을 찾고 있지만 관심 있는 동문들의 후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11월 전국체전에서 바둑이 시범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아직은 ‘미생’인 모교 바둑동아리가 ‘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학생회장에 박주영 군 당선

## 2015학년도 경고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회장(3년) 박주영



부회장(3년) 김찬호



부회장(2년) 주원중

로 선출되었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주원중 군이 2학년 몫의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재학생 523명 가운데 야구부 선수와 특수학급 학생을 제외한 473명이 투표

에 참여했다. 2015학년도 경고학생회를 이끌어갈 회장으로 박주영 군이 선출되었다.

지난 12월19일 모교 체육관에서 실시된 학생회 정부회장선거에서 박주영 군은 3명의 후보 가운데 최고 득표로 회장에 당선되었고 2위를 차지한 김찬호 군이 부회장으로

당선자 박주영 군은 “학생들 모두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히고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친구들과도 뜻을 모아서 자율적인 학생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마여,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라!

## ‘2014 용마축제’, 21개 동아리와 숨은 재주꾼들 총출연해 교사·학부모도 참여, 체험전 수익금은 불우이웃 성금으로

젊은 용마들의 끼와 숨은 재능이 유감없이 분출된 대동 한마당이였다.

지난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모교와 인근 동아대 석당홀에 펼쳐진 2014 용마축제는 전시, 공연, 체험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청마의 해’ 2014년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특히 서강대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대동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모교 본관 2층 용마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미술, 시화(시화), 사진 등 지난날 학예전의 맥을 잇는 전통적 장르의 작품들이 선을 보였다. 특히, 미술시간에 창작한 염색 공예 작품과 모교의 풍광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들이 전시됨으로써, 미술반, 사진반 등 특정 동아리가 전담하던 과거와는 달리 재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전시회로 꾸민 것이 돋보였다. 시화전은 故 이태석 동문을 주제로 다룬 시들로 구성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 완벽 ‘성전환’ 성공, 연극 <퓨전춘향>

연극 동아리 ‘짓’의 <퓨전춘향>은 여장(女裝) 남학생들이 펼친 익살과 능청스러움을 웬만큼 짐작할 수 있었지만, 실제 공연 실황은 예상을 뛰어넘는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18일 국산관에서 막을 올린 <퓨전춘향>은 월매, 춘향, 향단을 비롯해 기생 역을 맡은 출연자들이 완벽한 트랜스젠더 연기력을 발휘해 ‘퓨전’ 효과를 멋들여지게 연출했다. 이몽룡 역을 맡았던 임재현(1학년) 군은 “연기를 하면서 내 안의 또 다른 자아가 생겨나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연을 관람한 교사들도 “수업시간에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을 만큼 소극적이던 학생이 출색대는 이방 역할을 무난하게 소화해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제자들의 숨은 재능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 복적부적 와글와글, 체험페스티벌

21개 동아리가 대거 참가해 펼친 동아리 체험페스티벌은 참여와 탐구, 봉사를 실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2014년 동아리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된 체험페스티벌에는 바자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볼거리는 물론 먹을거리까지 등장했는데, 일본문화탐구반은 타코야끼를, 화학실험반은 솜사탕을, 공예반은 냅킨으로 만든 열쇠고리를, 낙서반은 낙엽으로 만든 책갈피 등을 즉석에서 제작해 직접 판매도 했다. 역사탐구반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엽서쓰기를 기획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체험전에서 거둔 수익금 718,000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서구 사랑의 따이거 봉사단 후원회’에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 X-마스 이브 장식한 공연페스티벌

밴드반, 응원반, 사물놀이반, 합창반, 중창반 등 음악활동 동아리는 물론 각종 개인기와 장기를 지닌 재학생을 비롯해 교사와 학부모까지 총출연해 대미를 장식한 용마축제공연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넘게 동아대 석당홀에서 시종 열띤 무대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연에는 음악 동아리들의 연주 이외에도 1학년 8반 전체가 펼친 플래시몹을 위시해서 남학생들도 얼마든지 깜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집체댄스,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열창과 랩, 담임교사와 함께 춤추고 노래한 2학년 7반의 무대 등이 화려하게 전개되었다. 이상훈(2학년) 군은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올라 멋진 듀엣을 선사했고, 인기교사들의 몸짓과 말투를 완벽하게 재현한 ‘선생님 성대 묘사’ 프로그램은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영숙 교육연구부장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고 “학생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아름



남학생들이 출연한 연극 <퓨전춘향>은 교사들도 깜짝 놀라게 했다.



공연을 지켜본 교사들은 끼를 발산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운 추억으로, 또 선생님들에게는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소중한 기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후배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모교가 재미있고 즐거운,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경중 댄스동아리 대상

중등부 1위 하며 최고상 차지해



경중 댄스동아리 ‘이지트’는 김재원 학생부장 선생이 춤을 지도하고, 학생회장 김원석 후배가 단원들을 이끌어 예상의 좋은 기량으로 대회참가 첫 번째에 대상을 따냈다.

경남중 댄스동아리 ‘이지트’가 에어로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지트’는 11월 22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부산시 에어로빅협회장기대회에서 중등부 1위를 차지하면서 전체 대상까지 거머쥐었다.

댄스동아리는 학교생활에 온전하게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운데 춤에 흥미와 소질이 있는 학생들로 결성해 계발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학생회장 김원석 군이 대표를 맡고 학생부장 김재원 교사가 전문지도를 담당함으로써 혼연일체의 팀워크로 단기간 만에 쾌거를 이룬 것이다. 모교 당국은 계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학력신장에 피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중은 11월 14일 2014학년도 학예 및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는 학예제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체험박람회도 가졌다.

## 대상 정종수 군, 단체최우수상 대천중

### 제2회 중학생학력경시대회, 참가 학교 늘어 고무적

경남고가 주최한 제2회 부산지역 중학생학력경시대회에서 대동중학교 정종수 군이 대상을 차지했다. 단체상 최우수상은 대천중학교에 돌아갔다.

지난 11월 22일 모교에서 열린 제2회 학력경시대회에는 경남중학교를 포함해 모두 21개 부산지역 중학교와 학생 117명이 참가해 제1회 대회보다 참여 학교와 응시 인원이 모두 늘어났는데 성적이 상위권에 포진된 학생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영어와 수학 2개 과목의 학력을 겨룬 이번 대회는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난이도를 조절해 주관식과 객관식을 혼합 출제하였다. 채점은 출제 담당교사가 1차 채점한 다음 영어와 수학과목 교사들이 모두 참여해 공정성을 꾀했다.

국산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서강대 교장은 참가자들에게 자율형 공립고로서의 모교 위상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모교 진학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는 모교의 우수한 교육활동과 재학생들에게 베푸는 장학특전 등 각종 지원책을 담은 홍보 동영상 상영해 우수 신입생 유치 목표에 하는 경시대회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도모



모교가 주최한 중학생학력경시대회는 발전가능성이 큰 행사로 보인다. 제2회 대회에서는 대동중 정종수(사진 왼쪽)군이 대상을 차지했다.



했다.

대상 입상자가 모교에 입학하면 신입생 장학금 300만 원을 받으며, 재학중 국영 수 성적이 내신 합계 5등급 이내로 유지되면 우선적으로 장학생 추천과 해외 대학탐방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학력경시대회는 경남중고발전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수 신입생들의 모교 지원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 중학생학력경시대회 입상자

☆대상:정종수(대동중) 금상:심동준(대천중) 은상:김민태(대천중) 이종현(부곡중) 동상:조대호(부산국제중) 박민석(부곡중) 정하립(가락중) 장려상:강민승(부산국제중) 김용환(학장중) 김대웅(대천중) 김성남(부산남중) 이승현(삼성중)

☆단체최우수상:대천중학교 단체우수상:부곡중학교



2014년도 회보 구독료 보내주시는 동문

\* ( )는 선납부자 ● 총 3,224명 2014. 12. 31.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구독료(년 3만원)을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028-01-032909-1

예금주 :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1회(1명) 박명현

3회(17명) 김인조 김희철 노관택 류영렬 문병집 박영희 박인창 박준양 손주석 송두호 윤태윤 이경 이안규 정규일 하덕모 한준석 황성남

4회(23명) 김경식 김기홍 김용욱 김주호 김희수 박무열 박석만 손영수 송호길 양종학 윤옥경 이남규 임영수 장수호 장영만 정상천 정순모 정지근 조동래 조성일 조흥제 최갑종 황갑생

5회(22명) 김근석 김석호 김윤규 김은규 김인택 김재관 김진휴 김형태 박장후 박종구 상기중 송두성 유병환 이경욱 이문기 정인조 정진우 정필조 주범국 진도영 최영철 홍관식

6회(34명)곽후섭 김삼엽 김윤용 김종철 김태곤 김태환 노재형 문교순 박기복 배문수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연희성 이상환 이강윤 이길상 이병종 이상기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상철 정승화 조운승 천산무 최갑영 최병수 최상해 최석원 최인갑 최한병 허광렬 (김태환, 이길상 2015년)

7회(40명) 강병희 강창구 고석수 구택용 김갑성 김광욱 김명관 김명환 김삼현 김영민 김용우 김종순 김진홍 김태배 류상남 박동순 박영섭 박재봉 박환배 배건식 배준현 서우찬 소진은 송외득 양종완 오동환 오장은 윤광선 윤진현 이동우 이민희 이성재 임성극 임의택 정보영 정성보 조덕찬 하근수 함홍주 허종호

8회(44명) 강성태 구분섭 권순걸 김봉길 김상식 김영철 김영환 김지선 김재범 김진석 김태규 김형배 노은영 문동현 문창화 박동열 박우상 박재범 박희욱 배기현 배덕수 배주원 서진근 손세일 안종열 엄덕양 이상택 이윤조 이종택 이준혁 이창탁 이춘기 이호수 이희순 이희욱 장혁표 정금출 조성래 조운제 지창수 최은식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9회(48명) 강영진 고수홍 권영대 김 청 김경희 김성택 김영국 김용환 김이도 김정구 김종호 노도현 박남수 박당희 박영복 박준경 박화철 성백규 신석현 신용의 안규현 안병환 원중희 유규열 유병철 유봉만 윤성태 윤일명 이대규 이재현 이주한 장동근 장병국 전인규 정 록 정민주 정해돈 조규대 조성진 조이호 지삼봉 차상구 최성욱 최위철 하재환 한동태 한득추 홍순대 (박화철 2015년)

10회(67명) 강희윤 고광수 권용술 김계순 김기호 김기훈 김동민 김문희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연수 김용규 김재곤 김정학 김종술 김종태 김창덕 김평순 박경수 박재경 박종문 박철민 배길순 배대기 송남진 신규태 안조만 오강욱 오기봉 우병윤 윤영태 윤재도 윤태현 이계창 이근태 이민섭 이봉원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언희 이의도 이재순 이정호 이창복 이현수 장기상 장병태 장인목 장청구 전영대 정 훈 정기철 정무길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양제 조종제 차동렬 최병도 최성열 하영수 하영오 황정조 (최병도 2015년)

11회(93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광정출 광태열 권병용 김달경 김무봉 김병기 김병태 김삼진 김선길 김성규 김수정 김영식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재곤 김재환 김중수 김중하 김태호 김태홍 김평덕 김학수 김항곤 김효민 박관호 박봉흙 박성우 박수경 박용관 박종환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배일규 백금덕 서영호 서자운 서진갑 성기득 손봉길 송호근 신유기 신현석 심재룡 안경문 연한호 오길훈 오정광 유홍중 유홍수 윤대원 이계찬 이근우 이상철 이상

태 이상학 이상훈 이상길 이상우 이세영 이윤우 이재진 이종문 이종백 이종범 임근호 장세원 장영권 장영천 정광웅 정은표 제정오 조동준 조양현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희호 최성욱 최창욱 최태원 하영득 하중선 현정춘 홍순문 (박익태 2017년, 조동준 2016년)

12회(90명) 강번순 강창수 공 문 구봉근 구창희 권시길 권언호 김기인 김기춘 김동열 김두수 김봉하 김부환 김상렬 김석근 김석주 김선일 김수원 김영수 김우성 김원경 김재덕 김종련 김중수 김종일 김지희 김진갑 김철기 김현주 김홍래 김훈호 문재권 박순국 박영운 박용운 박재영 박정운 박호민 배종섭 백승균 변동만 서병기 손재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규 안영배 안옥덕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성대 이수영 이승태 이승훈 이영길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용숙 이일쇄 이준복 이현달 이환철 임우영 임정명 임창완 장동석 장지흙 정대식 정성수 정수복 정영철 정의철 정태복 정호중 조한기 조흥래 지수남 차민도 천금태 최선일추영재 한춘배 한형수 허은도 허정욱 홍두표 (백승균 2015년)

13회(109명) 강귀동 강영삼 강영주 구덕권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공남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민철 김상치 김소웅 김신부 김영명 김일수 김장웅 김정균 김정성 김정일 김종의 김치덕 김한규 김형태 김홍석 김홍철 문 창 박건일 박길만 박민보 박인남 박영주 박원길 박일웅 박종택 박진태 박홍일 박홍표 배대걸 배정운 백길오 서시주 서영용 송신의 송창식 송결세별 신 명 신동배 신동조 신민철 신윤태 신하근 안준수 안홍석 양길승 오원수 오한수 윤기갑 윤영우 윤정의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병진 이상문 이상택 이상민 이용용 이웅재 이종달 이종영 이종일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임훈조 장영길 장용웅 전중신 정로상 정영호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병성 조용갑 조준태 조철현 차영일 최동환 최병영 최상호 최성욱 최장우 최태환 한관수 한병조 한진희 허훈 허갑도 황일민 황정대 (이경재 2019년)

14회(105명) 강통삼 강휘주 권 명 권근술 김경수 김도선 김동화 김명정 김무남 김무용 김성부 김영대 김영식 김원곤 김의용 김익명 김재도 김종수 김준우 김창기 김창호 김형수 김화욱 남기우 남우준 노수덕 류홍일 문성필 문운용 박남조 박동수 박민인 박삼현 박순일 박종철 박진재 박철수 박해동 백대우 변희경 심이경 손광운 손영목 송석출 송재현 신기석 신용진 신정봉 신준호 신현호 안영수 유정호 윤영현 윤정남 윤태규 이경우 이광우 이동식 이명재 이상동 이수남 이은우 이재돈 이재인 이진우 이창인 이창화 이현영 이환규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장우일 전병순 전상배 전수신 전재원 정문건 정선연 정시영 정용마 정현구 조광명 조규태 조규향 조기정 조상원 조영봉 진성태 최나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용 최총탁 하광진 하문수 하찬봉 한규환 한문식 한수길 허 증 허민영 황수길 황원재 황홍석

15회(107명) 강무상 강무송 강민조 강부남 강부부 강창일 고태인 구명준 권승부 김경일 김경희 김뇌명 김대석 김대영 김삼곤 김상차 김성명 김소현 김승평 김성열 김양일 김양정 김영훈 김옥규 김완식 김용세 김윤배 김정환 김종태 김종한 김준근 김중식 김관열 김학현 김황영 남갑순 문옥륜 박국용 박복만 박소남 박영길 박영길 박영무 박종석 박찬호 박철양 박호민 박효가 배성훈 백승진 서영진 손부홍 송길웅 신유기 신현영

윤우경 윤휘정이 건이 준 이상호 이순규 이승우 이양춘 이은수 이의일 이재원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일 이종희 이철성 이필연 임영길 장봉고 장영일 장종호 정동포 정석우 정옥중 정준수 정행남 조규중 조상호 조영일 조일량 조진환 주정중 천신일 최 욱 최무길 최병근 최병우 최원수 최창석 최태치 하영수 하정부 한도근 한진출 허경도 허광길 허정덕 홍 의 홍익찬 황건세 황중부 (임영길 2022년)

16회(109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원경 강인근 강종국 강진중 강홍조 공명규 권병석 권복술 권석동 김 조 김광수 김광용 김길정 김덕찬 김두웅 김박일 김상용 김상호 김성규 김양원 김연호 김영부 김영우 김응진 김인국 김일규 김정우 김정호 김찬문 김철곤 김태일 김형석 김휘부 노상현 문성환 민신용 박 흥 박두영 박소용 박수명 박영기 박용일 박정욱 박종봉 박종영 박춘호 박수근 배정희 서고명 서정호 서호조 성기식 성진호 손경식 손송방 손한조 송규정 송자문 신평양 안국정 양성민 양휘부 여성국 오광치 오형철 옥무용 옥윤석 유정호 윤세진 윤호주 이겸일 이경환 이규방 이길홍 이무근 이무영 이성남 이성인 이양근 이영재 이종승 이재인 이철수 이철원 이효일 이훈민 임 실 임승언 장사홍 정영일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조원제 조흥제 차상영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이현 한일량 허근 황규정 황규호 황태우

17회(94명) 감정은 강주수 권경술 권희영 김길우 김길호 김대희 김동운 김동조 김무원 김부근 김상현 김성오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원남 김인근 김재봉 김정남 김종영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종겸 남궁성은 노재운 박찬 박기식 박진양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종구 박홍이 박홍식 백철균 서재용 서정승 서창석 손성근 송상훈 송우근 송인문 신 종 신희규 심문섭 양상진 어윤대 오진식 오태식 옥영관 우기남 윤성욱 윤수성 이건우 이광석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재형 이정보 이종혁 이주봉 이형우 임우택 임용철 임정수 장길성 장승구 장용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동길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영주 정태일 제양성 조준연 천용광 최병림 최성호 추보실 하영수 허진행 현대일 황성진 (박홍식, 송유근 2015년)

18회(117명) 갈영수 강대원 강덕용 강만수 강성태 강승무 강영호 강인섭 광병태 구영곤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인 김기섭 김길제 김대욱 김두천 김만수 김병태 김사권 김상균 김성건 김성수 김성준 김순곤 김영국 김영욱 김영일 김옥길 김용기 김재창 김재환 김정규 김정래 김종문 김종삼 김종철 김준길 김지호 김형운 노정규 류종우 문창열 박근태 박기일 박기주 박노숙 박대웅 박덕봉 박동우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일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원태 박종구 박종만 박종문 박준성 박중수 박호성 박호영 배공내 백승래 서부원 서재봉 설현기 손무열 손찬규 송수일 안창범 양세수 오수환 오재동 우원호 봉수 이금희 이대운 이상영 이승훈 이영범 이영호 이재일 이재환 이종순 이태우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상곤 전영석 정구홍 정우용 정재호 조성재 주삼섭 지문석 채수일 천두갑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한기철 허도행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우재 홍정표 홍창우 황광건 (박기주 2017년)

19회(123명) 강동완 강영범 강환섭 고광호 고문찬 공기주 권정덕 권철현 김경우 김경재

김규욱 김택규 김택수 김병수 김문기 김배호 김봉호 김석구 김석윤 김성봉 김성욱 김성희 김순호 김양규 김영복 김영우 김영탁 김윤기 김익건 김인선 김일천 김재근 김경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김행복 남기진 남병근 남진현 남태현 노덕현 노은영 문관진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성철 박종화 박준우 박지천 배무삼 배영구 서승성 선우일남 성환진 손기태 손달현 손철수 신광수 신동인 신봉문 신원철 심영섭 안정모 오일환 오태수 옥인영 유수상 윤영규 이강용 이근식 이기주 이명환 이병규 이상만 이상우 이상행 이상달 이상환 이용호 이용훈 이정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흙 이춘만 임춘섭 임장주 임태원 임태석 장조훈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규영 정규수 정수남 정원찬 정윤영 정태을 조성환 조순제 조재운 진수상 진홍재 최경석 최병수 최상원 최정학 최희익 한명섭 한종환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성진 황태경 황태원 (오태수 2015년)

20회(99명) 강기철 강병천 강석근 강현진 고세훈 구본홍 구영남 권기우 금석주 김대업 김두영 김명표 김병문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영철 김우홍 김일석 김정환 김종민 김진환 김찬만 김철영 김태선 김태영 김한성 김한원 김형기 김형오 남기석 목일진 문성재 문시영 문형남 민영기 민형기 박 준 박우양 박용덕 박재봉 박형준 배서호 배정호 배준태 백안균 백창열 서상희 설철환 손춘수 송상운 송상현 송영주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양승태 양태운 여정호 오경석 오기현 옥성만 우성하 유근준 윤병규 유우성 이계명 이맹기 이석창 이수호 이철근 이영오 이우종 이원철 이정식 이종일 이종찬 이천규 이화춘 임성춘 장재성 전일준 정규식 정병순 정세현 정승창 정용환 조영철 차용환 채경석 최병호 최상인 최인식 최장하 최중경 한계정 허규관 허남균 홍순태 (김종민, 인재상 2015년)

21회(124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강화중 공기화 구본능 구현수 권오웅 권용호 권귀경 기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부근 김상덕 김상하 김성수 김영삼 김원일 김우건 김윤철 김조영 김지호 김창수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홍배 김항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상기 박성렬 박영석 박이운 박일송 박자민 박재명 박재선 박종용 박주용 박찬영 배영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상철 성정근 손원조 신남석 신대운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태규 우성건 우종득 유일근 육화원 윤대희 윤상철 유승근 이 혁 이동채 이명환 이문수 이성집 이세진 이세형 이순희 이영상 이영훈 이익규 이임택 이재택 이재호 이재홍 이재화 이종규 이한석 임경범 장 호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민 정순화 정연호 정정화 정재돈 정태영 조갑식 조덕준 조상호 조성근 조하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규용 최낙환 최동완 최민석 최수명 최은영 최정림 탁원택 하영준 한승현 허영도 황병구 황영실 황윤성

22회(122명) 강경관 강삼태 강성봉 강성숙 강호일 고인준 광대홍 구자룡 김광국 김도삼 김동욱 김동원 김동진 김명수 김무술 김석영 김성재 김성태 김수열 김순협 김원식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정곤 김정민 김진영 김진철 김창해 김창호 김철현 김학근 김해현 김형경 남박우 노평호 문태용 박광용 박규묘 박승묵 박인표 박재태 박재구 박재상 박준호 박찬명 박철민 박형천 박호병 박홍조 반병일 방영수 배춘식 배훈영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창전 서항용 손병용 손연모 손용섭 송기영 송현준 신윤근 안계환 안영수 안진환 안홍철 양한식 엄남기 이상규 오세길 유인조 유재락 윤성복 윤한복 이경상 이민성 이병수 이상주 이상협 이승휘 이영화 이웅규 이윤제 이인규 이흥기 장광환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전길홍 전민수 정근화 정남식 정해진 조봉국 조장현 조정규 조홍기 주성민 주우실 최 호 최성열 최영택 최학봉 최호립 하성일 하현성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 운 허남명 허승조 허인석 홍순옥 홍태구 황영환 **(김무술, 이흥기, 안군택 2015년)**

**23회(128명)** 감인홍 강구현 강상태 강창보 곽상인 구대용 구영수 구자섭 권오종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수 김상영 김상태 김상현 김석현 김성주 김성호 김영목 김영철 김영화 김윤관 김익근 김정복 김종배 김종훈 김주찬 김종광 김진엽 김태성 김태용 김태정 김태홍 남기운 도명세 류종윤 문규철 문명욱 문창호 박광규 박동현 박무열 박석관 박수갑 박원수 박익상 박인권 박종만 박창수 박철병 배준석 백창영 변상식 서승환 서영수 서한현 손근식 송은재 송재섭 송충승 신경재 신만동 신상희 신인극 신원종 신해철 안경섭 안범두 안병관 안병용 양희택 오도준 옥치범 유석산 유원형 유진우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순현 이 순 이덕권 이덕남 이덕일 이동성 이문희 이병찬 이상렬 이상수 이상은 이수백 이승구 이승현 이승호 이재재 이재동 이창호 장기원 장대익 장동국 장병규 전명식 전무수 전상태 전원익 전재홍 정기출 정규봉 정기웅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재식 정희원 조완재 조장래 조한용 조현표 채행운 최영목 최인식 허복진 허승윤 한윤길 허근창 허병상 홍종기 **(서승환 2015년)**

**24회(133명)** 강기중 강동우 강명덕 강승문 강영창 강정원 강정흠 공본수곽두희 구본열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석 김덕용 김도현 김동운 김동진 김명배 김무성 김성권 김성덕 김승탁 김영건 김영만 김영민 김영범 김영식 김윤섭 김윤수 김은호 김인규 김진식 김진윤 김학성 김한근 김헌태 남진현 노상우 노홍택 문섭제 박군철 박극재 박맹렬 박성표 박윤성 박정문 박창종 박창호 박찬호 박해성 백선훈 백성제 백운봉 변용준 변정규 서기홍 서정덕 석문식 심창기 손세영 손인수 손종식 신병식 신병현 신장우 안명수 안형수 안홍모 양승권 여철우 우흥하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윤지현 이 수 이기원 이대영 이동진 이명규 이명복 이상우 이상학 이영준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종규 이창무 이현영 이현국 이효구 이희성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장원서 장현동 전대한 전용우 정광운 정명근 정명동 정무열 정수철 정용호 정윤상 조병제 조영수 조운근 조용화 조재진 주정규 지인택 진병근 차동철 차분공 차한영 최동우 최석구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최홍철 하 옥 하재갑 하희조 한상렬 한태운 홍용기 황규선 황성훈

**25회(108명)** 강우주 고명식 권수갑 권태용 김구화 김길수 김남일 김태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경 김상수 김상필 김성환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명 김영호 김육권 김육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원욱 김종윤 김종현 김진우 김진철 김철수 김철수 문재인 박기환 박경립 박광용 박동건 박광우 박세철 박영하 박인국 박인동 박종찬 박호철 박홍기 배동명 백승익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석창재 손국영 손기천 손지용 송기현 송세경 송영근 송영기 승효상 신성기 신성우안 회석 양승욱 염수훈 오양득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윤종렬 이근만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민희 이윤택 이재욱 이찬형 이창훈 이홍성 이홍익 임상택 장선근 전선태 정길영 정재봉 정호성 제영성 제영성 조 익 조경일 조광재 조대우 조병욱 주재걸 차인재 최동하 최병주 최종덕 최차환 최태동 최현림 탁준길 태명산 한봉재 한준석 허택 허영형 **(염수훈 2015년)**

**26회(123명)** 강도식 강수남 강영범 고석훈 구영호 권영인 권해국 김 석 김 형 김경이 김경철 김두천 김만석 김상현 김섭권 김성우 김수인 김영섭 김영훈 김원철 김재수 김재용 김정근 김종

배 김종수 김종우 김주병 김태규 김태년 김택영 김호용 김홍식 민창현 박경수 박경제 박근석 박대철 박동조 박두식 박상호 박상호 박원상 박의영 박인섭 박장현 박재욱 박종국 박태룡 박판기 배용호 백문현 설광룡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욱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춘 신재호 심덕수 심승택 양준영 양지영 양희권 왕정일 왕호석 유근욱 윤경일 윤수현 윤종섭 윤홍석 이경호 이규용 이동일 이명진 이상원 이상만 이순철 이승무 이양춘 이재봉 이재철 이정근 이창식 이철학 이현곤 이희준 임석주 임철호 임형규 장 덕 장경제 장만욱 장성지 정국근 정승규 정영룡 정윤철 정의교 정종기 장한경 장현준 조만석 조일제 조대웅 조해금 주규철 차인식 최낙준 최명태 최성락 최성수 최영선 최응덕 최의수 최정환 하성봉 하원규 한원우 허갑석 현동우 홍순하

**27회(89명)** 강봉호 강용병 강대영 김강호 김경수 김경중 김경진 김광익 김광철 김근우 김동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욱 김병철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용섭 김우진 김원용 김재연 김종도 김종하 김지연 김진명 김태우 김태운 김학희 김호근 김홍근 김홍일 김홍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병주 박정민 박종국 박찬석 박치호 박현호 박정열 배인환 배효택 서기룡 성영표 손정식 신한원 안종택 양태종 오용환 유성모 유영상 윤모성 윤문태 윤정환 윤종택 윤지환 이 현 이광호 이상용 이상훈 이상득 이요섭 이원철 이인규 이재덕 이종찬 이현식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전태원 정남근 정두식 정삼근 정우영 정정길 조용수 조우영 천우태 최경률 최용호 최희진 태기섭 태종국 하창우 한수길 **(김상문 2015년)**

**28회(104명)** 강병두 강현안 고 진 고창준 구영소 권수원 권태세 김관세 김도현 김만종 김부운 김선경 김영철 김용섭 김익성 김인준 김종성 김주식 김준연 김창수 김창준 김철수 김태환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진호 민교식 박병근 박병준 박성권 박세혁 박영규 박윤철 박재훈 박종기 박진국 박진화 배명철 배효진 백영호 서기희 성탁문 손광택 신중현 안 풍 안병직 안재홍 안동욱 엄보용 엄재홍 엄호성 오현석 오호석 옥삼근 유봉수 유승일 윤경섭 윤대주 윤덕승 윤명수 윤일희 윤철상 이경포 이민우 이승열 이승하 이상훈 이원철 이윤규 이인재 이종대 이종만 이홍우 임영태 임익성 임제덕 전광범 전남실 전병철 전제만 전진학 정근재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 정지영 정해영 조대현 조석태 주종목 주창석 최강호 최경해 최광태 최연욱 탁충배 하대용 한병재 한봉석 한영호 허남식 황장두 황홍성 **(고창준 2015년, 안 풍 2022년)**

**29회(128명)** 강대용 강병철 강희철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 영 김기수 김기영 김대영 김대욱 김도태 김석운 김성문 김성을 김세원 김영휘 김용식 김용한 김윤영 김인술 김정규 김종명 김종윤 김종진 김철우 김태환 김한근 김한수 김호성 노동욱 류영광 류양성 민동식 박경환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혁 박동홍 박병를 박병태 박상길 박성근 박성철 박인평 박창언 박철환 박호근 배진영 백경돈 백성욱 변종만 사공운곤 서봉교 서석철 서석희 손영보 손재찬 손태권 손홍근 신영주 신용인 신호범 신홍기 안홍홍 양길용 양석모 양성봉 양승룡 양승오 오세용 윤 옥 윤석희 윤선영 윤종경 이공철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상용 이상진 이석조 이상열 이수돈 이승우 이승호 이영재 이재성 이정윤 이준환 이진욱 이효근 임무택 임상훈 임채병 장 만 장현경 전장화 전정국 정 길 정 란 정대현 정순정 정영주 정진환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일 조한욱 주재휘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원형 최정만 최종열 추영배 하창환 하헌태 한승경 한승동 한휘철 허광욱 현계성 황맹규 황유명 **(윤종경 2015년)**

**30회(132명)** 구을석 권용택 김경섭 김경수 김계형 김관일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상현 김성복 김성은 김수호 김순규 김승범 김영욱 김영일 김영주 김영호 김용한 김유기 김인섭 김재수 김재일 김종근 김종진 김진영 김철광 김치영 김해곤 김헌태 남영호 노동춘 도문성 마창수 박규완 박성태 박용석 박원호 박은수 박인달 박재백 박

정국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방문수 배경조 배기경 변운수 서강태 서민석 서복현 서하수 석대식 성낙도 송한식 신구근 신윤원 신인기 심풍수 안종화 양문섭 오광태 오중조 옥유전 유대현 유영록 유재일 유정동 유현덕 윤기승 윤인태 윤종순 이경우 이기환 이동근 이명건 이상구 이상필 이선광 이성기 이수석 이수성 이영준 이인호 이종욱 이종훈 이진걸 이철호 이태봉 이학수 이한수 이혜정 이호걸 이한기 인준승 장봉규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전경재 전동근 전준호 정경목 정기룡 정병호 정부광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용하 정우정 정재화 정태환 정해석 조경재 조동호 조순영 조재성 차원주 채영재 최 옥 최석렬 최우철 최진근 하규양 하영동 하재명 한효용 황윤식 황철민 **(김영일 2015년)**

**31회(89명)** 고영호 공광욱 공종렬 권문선 김관호 김 만 김명우 김시현 김의석 김정덕 김종호 김태근 김태주 김현주 김형수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류명석 문성일 민종현 박경수 박인정 박종호 박준석 박준열 박해성 박희남 배인환 서규영 서동근 서정호 서태고 성탁순 송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재구 심재홍 안중수 양문석 오민일 오용환 옥치호 유병학 윤석중 이경희 이병근 이병태 이상일 이상식 이수준 이승진 이원태 이재웅 이흥규 임종태 장건호 장평우 전희수 정무석 정용정 정원규 정정남 정창규 정철수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최경우 최부영 최상규 최인목 최재선 최재식 최주홍 최진섭 최해영 허명수 허병관 하학렬 한문성 허일현 홍성수 **(정철수 2015년)**

**32회(61명)** 강기상 고병재 권학률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소용 김영길 김영현 김종식 김종관 김창범 류성렬 마승철 민길식 박상학 박우상 박운대 박진원 설원실 손병철 신국선 신명환 신철호 신한국 안병철 안병현 안영호 안정모 양문성 오경명 우득현 윤성수 윤종열 이관우 이문영 이병준 이병훈 이상용 이원천 이재수 이종수 임인섭 임재균 장영택 전성환 정성수 정용운 정의주 정재종 조준현 지성호 최승찬 최영훈 최종호 최춘호 최호영 한문진 허 정 황문찬 황성범

**33회(59명)** 공진환 권영식 김 철 김계주 김근수 김기산 김명환 김범영 김원일 김재선 김정성 김종만 김종욱 김종인 김태근 김태훈 김한호 김호진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박병진 박성병 박용득 박치호 박태종 배성만 배성수 배종현 백수현 서광기 성두대 송종현 신동천 신용준 심희찬 안동문 안영훈 예영찬 오상기 오항선 윤상현 이 훈 이광호 이동근 이윤조 이진우 이해승 이형근 임명제 장정석 조덕환 지창근 최동호 최영두 최용남 최호경 최홍원 황용수

**34회(39명)**곽수근 구본철 권장우 김동욱 김상환 김승범 김종명 김종식 김종업 김중근 김충환 김태환 김태하 김희영 도영민 문창영 박광오 박기훈 박종수 박철웅 박철호 서영화 서용운 오상민 오승태 이상운 이상훈 이재완 정노혁 정성근 정태태 조 선 조문국 조시형 진양호 태일산 허진훈 홍승철 황기운 **(정성근 2015년, 정아태 2016년)**

**35회(45명)** 강현욱 구자민 김경환 김기철 김동인 김동일 김우경 김우신 김윤석 김홍근 나동욱 류인수 모재현 문흥근 박찬익 서석권 성규원 성창용 손석우 손재수 손대섭 송화철 안종업 오시영 이기석 이동형 이영오 이용하 이재성 이종찬 이창성 임성배 장우진 전해진 정성운 정인철 정효영 정희창 조홍섭 주기홍 진호준 천현석 최기평 허승훈 황용순 **(김윤석 2015년)**  
**36회(40명)**곽상호 김규선 김덕환 김병국 김영훈 김종백 김종오 김창일 김한교 김희환 문상식 박명하 박영준 박영찬 박용철 박철중 서광원 신용덕 안재익 양석용 오정광 윤용수 이상권 이상준 이상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학수 임서용 임창섭 정규영 정인석 차대일 채현철 최성필 최승호 최재철 한형식 홍의창  
**37회(30명)** 권기원 김상현 김성현 김영근 김원범 김중휘 김태중 문진형 박만규 박선호 박용진 성창수 송경철 신우진 양귀수 유호섭 이상백 이용한 이주홍 이한주 장원익 전인수 조상현 조성

각 천웅찬 최환승 하병혁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44명)**곽동열 권두성 김경태 김구도 김기현 김대훈 김문철 김석구 김성철 김영길 김원철 김찬수 김관준 김현민 류인식 문기상 문익현 박인철 박준표 박진권 박현수 신동훈 심재영 안길수 오승언 오종현 유관재 윤경만 이경필 이동훈 이종명 이창호 이한국 정영석 정원제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채주홍 최휴경 황인국

**39회(46명)** 강대경 김경근 김대중 김도경 김병기 김영부 김용태 김원범 김윤홍 김종업 김철술 김해수 김형보 김형철 김희영 노성수 박근태 박상환 박수근 박용한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평오 배효민 손석호 심왕섭 안승진 여동섭 오선호 원우광 윤원욱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승민 이준영 이진호 이태운 장영욱 정우영 정의창 정진해 조규름 진병화 차문영 **(차문영 2015년)**

**40회(45명)** 강문성 강창지 권귀동 권병서 김경환 김동근 김성진 김영진 김종철 김희성 나수민 문기성 문태영 박근성 박무성 박만규 박상범 박양근 박재현 박재성 배병훈 배영진 배윤성 배진수 서주현 심 철 안경진 예진원 옥진형 우영환 윤성용 이 광 이수호 이영철 이정삼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전규열 정찬호 최용석 최태훈 한수열 한정호 홍재용 **(김종철 2017년)**

**41회(31명)** 강석희 곽성국 김병성 김형률 김희식 박보환 박상환 박승창 박정의 성종훈 송은호 송인환 안광근 안영주 원운근 육육성 윤성보 윤종진 이경석 이경호 이수영 이양걸 임병호 정필상 조재봉 천성원 허범종 한정호 허종운 허지희 홍석우  
**42회(13명)** 권영태 김규식 김병기 박동식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신봉준 유기만 이상호 전병호 정홍준 제정환

**43회(20명)** 강병규 김영식 김영재 김종식 김진수 박경노 박태건 박형규 심문섭 이상춘 이상훈 이승택 이용상 이호영 전순표 정동수 정용훈 정효범 최용석 최한림 **(박영규 2015년)**  
**44회(18명)** 김종현 김창용 남경민 박정민 서영민 송동근 예상수 이동렬 이창용 이현규 임정훈 임지훈 정종윤 조영호 최현욱 탁정환 허태욱 황인주

**45회(10명)** 김상수 김찬수 김태우 김현호 박 웅 오승현 이상현 장성익 진상영 최재영  
**46회(15명)** 강성백 강진희 구경민 권성기 권진근 김동희 노주현 배태일 서용택 윤성환 이경돈 이주용 정영석 최원석 한영길 **(정영석 2016년, 안영길 2022년)**

**47회(5명)** 강동훈 고달우 성상용 손교영 임형길  
**48회(3명)** 김정훈 박성준 이동재  
**49회(7명)** 김원식 김학균 김현우 안형수 장민건 조영철 최진영  
**50회(9명)** 강 철 강봉규 김경록 김우진 김윤창 박현욱 송승재 유우진 이인준

**51회(4명)** 강승호 반길호 이시원 정진우  
**52회(3명)** 구태영 장태원 홍지호  
**53회(1명)** 이재홍  
**54회(1명)** 강종수  
**55회(1명)** 최범준  
**58회(1명)** 정 혁  
**65회(1명)** 최성원  
**69회(1명)** 정민기(2023년)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2명) **윤룡선(2015년), 주차중**  
기수 & 이름 확인불명 47명

**동창회보를  
구독하시는 것  
모교와 동창회를  
도우는 일입니다.**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본부)

2014년 9월 25일까지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故김근준	(1회)	100만원	김수원	(12회)	10만원	김준연	(17회)	100만원	김문기	(19회)	20만원	박재상	(22회)	2000만원	성재일	(26회)	200만원	임광열	(29회)	100만원	정채화	(30회)	60만원
김희철	(3회)	30만원	김용호	(12회)	10만원	김준위	(17회)	100만원	김봉호	(19회)	500만원	박재인	(22회)	50만원	양준영	(26회)	50만원	임상흔	(29회)	50만원	친성일	(30회)	10만원
송두호	(3회)	1000만원	김우성	(12회)	10만원	김지창	(17회)	30만원	김삼도	(19회)	10만원	손연모	(22회)	100만원	엄윤섭	(26회)	100만원	전창화	(29회)	100만원	최상호	(30회)	50만원
김주호	(4회)	20만원	김종수	(12회)	50만원	김창운	(17회)	300만원	김석윤	(19회)	20만원	유재진	(22회)	1000만원	왕정일	(26회)	100만원	장 만	(29회)	100만원	최영규	(30회)	20만원
박석만	(4회)	20만원	김종원	(12회)	10만원	김태호	(17회)	20만원	김양곤	(19회)	50만원	이동열	(22회)	100만원	이경호	(26회)	100만원	정 길	(29회)	100만원	최우철	(30회)	500만원
박흥기	(4회)	30만원	김종일	(12회)	10만원	김효남	(17회)	10만원	김영우	(19회)	100만원	장무성	(22회)	100만원	이규섭	(26회)	70만원	정성호	(29회)	100만원	최재봉	(30회)	100만원
양종학	(4회)	300만원	김진갑	(12회)	20만원	문석웅	(17회)	50만원	김정국	(19회)	10만원	장성복	(22회)	1000만원	이상원	(26회)	200만원	조승재	(29회)	100만원	추태영	(30회)	10만원
장수호	(4회)	100만원	김철기	(12회)	100만원	박가식	(17회)	100만원	김중기	(19회)	10만원	장성덕	(22회)	1000만원	이순철	(26회)	50만원	황유명	(29회)	30만원	하규영	(30회)	100만원
정순모	(4회)	200만원	김춘광	(12회)	10만원	박신도	(17회)	200만원	김철호	(19회)	100만원	장영근	(22회)	100만원	이영덕	(26회)	100만원	강석철	(30회)	30만원	하진근	(30회)	10만원
정인조	(5회)	100만원	김호구	(12회)	10만원	박영두	(17회)	20만원	남기진	(19회)	100만원	정해진	(22회)	50만원	정거돈	(26회)	100만원	권영인	(30회)	30만원	허영재	(30회)	30만원
김운용	(6회)	10만원	남기용	(12회)	1000만원	박영일	(17회)	10만원	박갑진	(19회)	30만원	조윤재	(22회)	200만원	정국근	(26회)	100만원	권용택	(30회)	50만원	황철민	(30회)	100만원
나오연	(6회)	100만원	박영운	(12회)	10만원	박인사	(17회)	100만원	박동해	(19회)	300만원	최학봉	(22회)	100만원	정익교	(26회)	100만원	구을석	(30회)	10만원	30회 울산동기회	450만원	
노재형	(6회)	10만원	박용운	(12회)	10만원	박재구	(17회)	20만원	박상식	(19회)	50만원	허범도	(22회)	1000만원	조일재	(26회)	30만원	김경수	(30회)	30만원	공광옥	(31회)	50만원
오영은	(6회)	200만원	박정운	(12회)	10만원	박종구	(17회)	100만원	박종화	(19회)	100만원	김동욱	(23회)	200만원	최수일	(26회)	50만원	김기섭	(30회)	100만원	공종렬	(31회)	12만원
이길성	(6회)	30만원	박종정	(12회)	100만원	박창홍	(17회)	100만원	성낙출	(19회)	100만원	김동욱	(23회)	50만원	하원규	(26회)	500만원	김기수	(30회)	10만원	권해철	(31회)	12만원
이희문	(6회)	30만원	박창수	(12회)	30만원	백철균	(17회)	10만원	신윤철	(19회)	30만원	김상영	(23회)	50만원	한원우	(26회)	100만원	김기업	(30회)	50만원	김경영	(31회)	12만원
임경택	(6회)	10만원	안상직	(12회)	30만원	서재홍	(17회)	20만원	안정모	(19회)	20만원	김영기	(23회)	200만원	하주관	(26회)	50만원	김백수	(30회)	30만원	김기정	(31회)	100만원
장재수	(6회)	20만원	안영규	(12회)	20만원	서정승	(17회)	200만원	이상달	(19회)	100만원	김용기	(23회)	20만원	26회 구형회	100만원	김상직	(30회)	10만원	김 만	(31회)	100만원	
정건용	(6회)	10만원	안영배	(12회)	10만원	손성근	(17회)	200만원	이용만	(19회)	10만원	김용선	(23회)	30만원	김진화	(27회)	100만원	김성복	(30회)	10만원	김성수	(31회)	300만원
정상철	(6회)	30만원	엄태섭	(12회)	30만원	송유근	(17회)	30만원	이용홍	(19회)	1000만원	김정록	(23회)	20만원	류재결	(27회)	10만원	김세일	(30회)	30만원	김영철	(31회)	12만원
정세동	(6회)	20만원	오세정	(12회)	20만원	송인문	(17회)	100만원	이장희	(19회)	100만원	김중광	(23회)	100만원	문두찬	(27회)	500만원	김승대	(30회)	10만원	김재술	(31회)	60만원
최상해	(6회)	10만원	옥계한	(12회)	100만원	신정아	(17회)	10만원	장홍의	(19회)	500만원	김태용	(23회)	100만원	박치호	(27회)	1000만원	김옥성	(30회)	10만원	김정택	(31회)	12만원
허 택	(6회)	30만원	왕한균	(12회)	100만원	신 종	(17회)	30만원	최연근	(19회)	10만원	김 현	(23회)	30만원	윤종택	(27회)	10만원	김재수	(30회)	30만원	김정택	(31회)	12만원
이우호	(7회)	50만원	윤성화	(12회)	12만원	안정의	(17회)	30만원	최화익	(19회)	10만원	노영배	(23회)	200만원	이요섭	(27회)	30만원	김종진	(30회)	30만원	김종호	(31회)	120만원
故공상태	(8회)	100만원	이수영	(12회)	10만원	여성열	(17회)	10만원	황태경	(19회)	20만원	박수갑	(23회)	100만원	한수길	(27회)	200만원	김종휘	(30회)	100만원	김진국	(31회)	12만원
구본섭	(8회)	100만원	이승훈	(12회)	10만원	오태식	(17회)	100만원	황태원	(19회)	1000만원	서영수	(23회)	100만원	27회 동기회	60명/2740만원	김창근	(30회)	30만원	김태근	(31회)	100만원	
김봉길	(8회)	500만원	이용언	(12회)	50만원	우기남	(17회)	50만원	황호균	(19회)	100만원	서한현	(23회)	10만원	17회 동기회	4명/400만원	김해근	(30회)	200만원	김판택	(31회)	12만원	
박동열	(8회)	1000만원	이원우	(12회)	100만원	윤성욱	(17회)	500만원	강석근	(20회)	300만원	손근식	(23회)	100만원	구영소	(28회)	100만원	김현태	(30회)	100만원	김현주	(31회)	12만원
안종렬	(8회)	100만원	임정명	(12회)	30만원	윤수성	(17회)	30만원	강영환	(20회)	10만원	송충승	(23회)	50만원	김명영	(28회)	100만원	박동욱	(30회)	50만원	김현울	(31회)	12만원
윤상현	(8회)	10만원	정대식	(12회)	10만원	이건우	(17회)	100만원	김세준	(20회)	100만원	신상희	(23회)	100만원	김명준	(28회)	100만원	박원호	(30회)	100만원	남기태	(31회)	200만원
이윤조	(8회)	100만원	정영철	(12회)	200만원	이성흥	(17회)	30만원	김원율	(20회)	10만원	안병율	(23회)	20만원	김부윤	(28회)	100만원	박재백	(30회)	30만원	남철우	(31회)	60만원
장혁표	(8회)	100만원	최병준	(12회)	10만원	이세복	(17회)	1000만원	김일석	(20회)	100만원	안병화	(23회)	20만원	김용석	(28회)	10만원	박정태	(30회)	30만원	류명석	(31회)	100만원
김영국	(9회)	10만원	최병훈	(12회)	10만원	이수창	(17회)	100만원	김태선	(20회)	300만원	옥치범	(23회)	300만원	김준연	(28회)	100만원	박철우	(30회)	100만원	박경수	(31회)	200만원
김중호	(9회)	50만원	최신일	(12회)	20만원	이우기	(17회)	10만원	김태영	(20회)	500만원	원인건	(23회)	200만원	김형진	(28회)	100만원	서강태	(30회)	10만원	박석기	(31회)	100만원
김태영	(9회)	10만원	탁해정	(12회)	10만원	이일영	(17회)	10만원	김형오	(20회)	1000만원	육병천	(23회)	20만원	김홍중	(28회)	100만원	서민석	(30회)	60만원	박석두	(31회)	100만원
박당해	(9회)	20만원	하일민	(12회)	30만원	이정보	(17회)	10만원	박병철	(20회)	500만원	윤순현	(23회)	200만원	노영현	(28회)	200만원	서복현	(30회)	100만원	박인정	(31회)	12만원
성백규	(9회)	10만원	한춘배	(12회)	10만원	이종길	(17회)	10만원	박형준	(20회)	100만원	이동성	(23회)	100만원	노태욱	(28회)	100만원	서재원	(30회)	30만원	박종규	(31회)	100만원
신석현	(9회)	20만원	김정성	(13회)	30만원	이종혁	(17회)	100만원	백문찬	(20회)	100만원	이문희	(23회)	200만원	박석환	(28회)	100만원	서하수	(30회)	200만원	박희민	(31회)	12만원
이대규	(9회)	100만원	이정명	(13회)	30만원	이형우	(17회)	100만원	신원기	(20회)	200만원	이병찬	(23회)	300만원	박종기	(28회)	50만원	석대식	(30회)	30만원	배정우	(31회)	12만원
이영규	(9회)	10만원	정철기	(13회)	30만원	장승구	(17회)	200만원	이실근	(20회)	100만원	이상수	(23회)	50만원	송명석	(28회)	20만원	송영환	(30회)	100만원	서동균	(31회)	12만원
한동대	(9회)	50만원	황일인	(13회)	100만원	전경명	(17회)	100만원	장상배	(20회)	300만원	이종호	(23회)	100만원	엄보용	(28회)	100만원	송한식	(30회)	30만원	서수교	(31회)	100만원
황영선	(9회)	20만원	김경일	(15회)	1000만원	정량부	(17회)	100만원	장춘식	(20회)	10만원	전영조	(23회)	200만원	옥상곤	(28회)	100만원	신범주	(30회)	30만원	서태교	(31회)	100만원
김상국	(10회)	20만원	서정욱	(15회)	10만원	정태일	(17회)	100만원	정규식	(20회)	300만원	전원익	(23회)	30만원	윤경섭	(28회)	100만원	신영주	(30회)	30만원	성오용	(31회)	12만원
김선동	(10회)	20만원	손부홍	(15회)	500만원	정해표	(17회)	10만원	정용환	(20회)	300만원	장상건	(23회)	200만원	이원철	(28회)	300만원	신윤원	(30회)	30만원	손은정	(31회)	12만원
김성규	(10회)	50만원	이상모	(15회)	30만원	제양성	(17회)	50만원	차상곤	(20회)	200만원	조현표	(23회)	50만원	임재덕	(28회)	100만원	안중화	(30회)	100만원	손정수	(31회)	24만원
박재경	(10회)	10만원	임영길	(15회)	100만원	조용운	(17회)	30만원	채경석	(20회)	200만원	채행윤	(23회)	100만원	정해영	(28회)	100만원	오경태	(30회)	10만원	손진기	(31회)	12만원
박종문	(10회)	20만원	하정부	(15회)	10만원	조종언	(17회)	500만원	최장하	(20회)	300만원	최인식	(23회)	50만원	한명재	(28회)	200만원	왕소모	(30회)	30만원	신상하	(31회)	12만원
신대수	(10회)	20만원	한해수	(15회)	1000만원	천용광	(17회)	10만원	한기원	(20회)	100만원	하복진	(23회)	20만원	한수범	(28회)	50만원	유영록	(30회)	10만원	신수열	(31회)	12만원
오강욱	(10회)	200만원	강종국	(16회)	10만원	최만식	(17회)	5000만원	허규판	(20회)	1000만원	허영근	(23회)	50만원	김기영	(29회)	50만원	유재일	(30회)	10만원	심규열	(31회)	12만원
이봉원	(10회)	10만원	강진중	(16회)	10만원	최성호	(17회)	1000만원	허남균	(20회)	300만원	손세영	(24회)	100만원	김대욱	(29회)	3000만원	윤기승	(30회)	50만원	심재홍	(31회)	12만원
이연희	(10회)	20만원	김상호	(16회)	100만원	추봉실	(17회)	10만원	강창수	(21회)	500만원	24회 동기회	4500만원	김도태	(29회)	30만원	윤성덕	(30회)	1000만원	안기수	(31회)	24만원	
임호웅	(10회)	20만원	박춘호	(16회)	10만원	하영수	(17회)	300만원	김성환	(21회)	300만원	25회 동기회	6470만원	김석윤	(29회)	30만원	윤인태	(30회)	50만원	안우현	(31회)	60만원	
전영대	(10회)	20만원	여성국	(16회)	10만원	허종언	(17회)	30만원	전재호	(21회)	1000만원	김진철	(25회)	1000만원	김영기	(29회)	10만원	윤종순	(30회)	30만원	오민일	(31회)	300만원
정승석	(10회)	50만원	강주수	(17회)	10만원	황중부	(17회)	10만원	21회 동기회	4710만원	박맹우	(25회)	30만원	김인술	(29회)	100만원	이광봉	(30회)	30만원	오용환	(31회)	120만원	
조양재	(10회)	1000만원	권경술	(17회)	100만원	현대일	(17회)	100만원	구자룡	(22회)	100만원	강영녕	(26회)	200만원	김정광	(29회)	100만원	이광희	(30회)	20만원	윤정수	(31회)	20만원
허영오	(10회)	200만원	김길호	(17회)	100만원	17회마산동기회			김도삼	(22회)	100만원	권중대	(26회)	100만원	박동일	(29회)	50만원	이기환	(30회)	50만원	이병태	(31회)	100만원
공상기	(11회)	100만원	김동수	(17회)	500만원	(김무상, 송인창, 정광우,			김동욱	(22회)	100만원	김두천	(26회)	100만원	박동학	(29회)	200만원	이명건	(30회)	30만원	이석우	(31회)	12만원
김재곤	(11회)	30만원	김동조	(17회)	10만원	최좌삼			김동원	(22회)	300만원	김상현	(26회)	500만원	박상길	(29회)	100만원	이영준	(30회)	30만원	이승진	(31회)	12만원
백연균	(11회)	30만원	김두백	(17회)	10만원	김길재	(18회)	1000만원	김문관	(22회)	20만원	김우갑	(26회)	50만원	박성철	(29회)	200만원	이민길	(30회)	50만원	이재용	(31회)	24만원
심재룡	(11회)	20만원	김무부	(17회)	100만원	김동희	(18회)	100만원	김성재	(22회)	50만원	김중우	(26회)	200만원	배진영	(29회)	100만원	이학수	(30회)	700만원	장건호	(31회)	12만원
강수현	(12회)	200만원	김백수	(17회)																			



## 2014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회장 허범도 3,000만원

● 자문위원

신현호(14), 송규정(16), 김길제(18), 김경재(19), 남진현(19), 박용덕(20), 임경범(21), 전우성(21), 정상인(21)

이상 100만원

● 부회장

박상호(26), 박명진(33)

이상 300만원

고병호(22), 박재상(22), 박찬명(22), 박흥조(22), 안계환(22), 이영화(22), 이병찬(23), 곽두희(24), 노상우(24), 박창호(24), 원동희(24), 김진철(25), 박종찬(25), 서병수(25), 송정규(25), 최동하(25),

최강호(28), 박성철(29), 김현태(30), 서하수(30), 윤성덕(30), 최우철(30), 류명석(31), 이병태(31), 김법영(33), 류장근(33), 안재익(36), 유호섭(37), 김경태(38), 박인석(39), 우영환(40), 김형률(41), 이양결(41)

이상 100만원

● 명예부회장

문재인(25)

이상 100만원

총 46명 (합계 7,900만원)

※ 용마바둑회 특별기금 500만원

◎ 본부 분담금 낸 기수

: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6회, 37회, 38회, 39회, 40회, 41회, 42회(2013~2014년분), 43회, 48회

◎ 야구후원금 낸 기수

: 12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6회, 37회, 38회, 39회, 40회, 41회, 42회(2013~2014년분), 43회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조성근	(31회)	12만원	이병준	(32회)	100만원	익 명	(33회)	1000만원	김원범	(37회)	10만원	한성호	(39회)	10만원	윤성보	(41회)	20만원			
조영기	(31회)	24만원	최준호	(32회)	100만원	이형근	(33회)	50만원	박용진	(37회)	50만원	김영진	(40회)	10만원	윤성현	(41회)	10만원			
조현우	(31회)	12만원	허 규	(32회)	10만원	정인실	(33회)	10만원	양귀수	(37회)	10만원	이영철	(40회)	10만원	이경석	(41회)	50만원			
천창호	(31회)	12만원	허재창	(32회)	30만원	최영두	(33회)	12만원	조영규	(37회)	20만원	강병오	(41회)	10만원	이경호	(41회)	30만원			
최경우	(31회)	32만원	계동원	(33회)	30만원	한상봉	(33회)	100만원	홍병일	(37회)	10만원	강석해	(41회)	10만원	이양결	(41회)	200만원			
최봉근	(31회)	12만원	김기산	(33회)	30만원	34회 동기회	1000만원	홍원석	(37회)	10만원	김기영	(41회)	10만원	이종민	(41회)	10만원	44회 동기회	500만원		
최상규	(31회)	12만원	김법영	(33회)	3000만원	이재완	(34회)	500만원	황태윤	(37회)	10만원	김범성	(41회)	20만원	이주해	(41회)	30만원	창성익	(45회)	50만원
최재호	(31회)	12만원	김재선	(33회)	100만원	이진호	(34회)	200만원	곽동열	(38회)	10만원	김동준	(41회)	30만원	이준석	(41회)	10만원	47회 동기회	200만원	300만원
최진섭	(31회)	200만원	김종인	(33회)	12만원	김동인	(35회)	10만원	박준표	(38회)	20만원	김형률	(41회)	50만원	임병호	(41회)	10만원	김경원	(54회)	10만원
최해영	(31회)	12만원	류장근	(33회)	100만원	김병수	(35회)	10만원	오희진	(38회)	10만원	남관희	(41회)	30만원	장익조	(41회)	10만원	故표종빈	(64회)	500만원
최효식	(31회)	60만원	류흥영	(33회)	30만원	이남기	(35회)	10만원	이종명	(38회)	300만원	류지섭	(41회)	30만원	정필성	(41회)	10만원	故박태현 은사		
하명수	(31회)	30만원	박명진	(33회)	5500만원	황용순	(35회)	10만원	김도경	(39회)	20만원	박정기	(41회)	20만원	조원호	(41회)	10만원	(박치호, 27회)1000만원		
하학열	(31회)	120만원	박성병	(33회)	10만원	김철원	(36회)	100만원	김운홍	(39회)	30만원	백선민	(41회)	10만원	천성원	(41회)	10만원	김해지역동창회	300만원	
한광규	(31회)	12만원	백수현	(33회)	50만원	이동희	(36회)	30만원	김진호	(39회)	20만원	변영호	(41회)	10만원	최호열	(41회)	10만원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허일현	(31회)	12만원	서재영	(33회)	100만원	임창섭	(36회)	0만원	박인석	(39회)	100만원	신동진	(41회)	20만원	추교용	(41회)	30만원	부산교통공사용마회	100만원	
홍성수	(31회)	120만원	송중현	(33회)	100만원	정인석	(36회)	30만원	양정교	(39회)	10만원	안광근	(41회)	10만원	허치희	(41회)	50만원	사하지역동창회	300만원	
김창범	(32회)	20만원	신용준	(33회)	10만원	김길영	(37회)	20만원	이영수	(39회)	10만원	유수호	(41회)	10만원	홍동훈	(41회)	30만원	샌프란시스코동문	50만원	
																9회 조동훈, 윤중대	11회 추			
																기석, 박병호	12회 최수용	14회		
																정조용, 김철규	21회 손석보	양		
																경현, 정갑식	김수라	하재천		
																최성필	(43회)	40만원	23회 방기준	26회 육승주
																시카고동문	107만원			
																(22회 김정수 회장 외)				
																용마회	90만원			
																(시청: 91만, 사하구청: 45				
																만, 서구청: 54만)				
																재동경문회	200만원			
																김정옥(전 경중 재직 교사)				
																100만원				
																남석해(전 경고 재직 교사)				
																30만원				
																기 타(이름불명)	3만원			
																합계: 11억 4,798만원				

##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본부)

2014년 9월 26일 ~ 2014년 12월 31일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배서호	(20회)	200만원	김관세	(28회)	100만원	김용석	(28회)	100만원	김준연	(28회)	100만원	서영대	(28회)	150만원	이경포	(28회)	200만원	
강봉기	(22회)	100만원	김기태	(28회)	300만원	김정유	(28회)	200만원	김형진	(28회)	150만원	임재홍	(28회)	200만원	이만수	(28회)	200만원	
노세현	(22회)	80만원	김만중	(28회)	300만원	김종섭	(28회)	100만원	노명현	(28회)	100만원	옥상근	(28회)	100만원	이만재	(28회)	100만원	
박상호	(26회)	50만원	김명영	(28회)	100만원	김종성	(28회)	250만원	박영규	(28회)	100만원	옥준원	(28회)	100만원	이승해	(28회)	100만원	
구영소	(28회)	400만원	김상정	(28회)	100만원	김준배	(28회)	100만원	백영호	(28회)	100만원	윤경섭	(28회)	100만원	이원용	(28회)	100만원	
																허영철	(28회)	200만원
																- 소계		
																5,430만원		
																- 총 누계금액		
																12억 288만원		

# 마흔일곱 분을 찾습니다

2014년에도 용마가족들께서 동창회보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도 모두 3,224분들께서 친히 구독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7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창회보 구독료를 보내 주신 분들 가운데

47분의 졸업 기수와 성함을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송금하시면서 기수를 누락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창회보 20면에 게재된 기수별 납부자 명단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누락된 분들은

출금 은행과 날짜를 확인하시어 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료를 보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러운 용마' 이시기 때문입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보 편집실 올림 [동창회 사무국 : (051) 245-7551~3]



www.alphans.co.kr

[광고]

대한의사회 의료광고 심의일  
제000-00000호

# “척추부위 통증 및 디스크질환 치료”

허리는 90%가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알파신경외과의  
비수술적 척추디스크 클리닉은  
수술로 인한 불안감의 해소와  
심리적 안정까지 치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알파신경외과는 첨단 의료기기와  
다가가는 서비스로 진단에서부터 치료는 물론  
“척추과학운동클리닉”에서 재활운동까지  
할수있는 “종합 척추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인석 원장

신경외과 전문의  
조현원 원장

## 종합 척추 치료 시스템 (Total Spine Care System)



## 비수술적 요법

(무중력 감압 치료)

척추 디스크 - 무중력 감압치료 요법  
(무중력 감압치료 95%, 수술적 치료 5% 시행)

## “알파신경외과에 오시면 좋은점”

### 1. 당일 진료 → 당일 검사 및 결과 완료 → 치료 시작

- ※ 당일 척추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 효율적 검사 시간 합리적인 치료비용
- ※ 진료시간, 검사시간 단축 ⇒ 검사 직후 결과 및 상담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동선의 길이가 짧고, 혼잡하지 않아 편리하고 편안하게 본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先 비수술적 치료, 後 수술적 치료 고려!!!

- ▶ 먼저 비수술적 치료로 환자께 최선을 다하는 병원
- ※ 의료진 (신경외과 전문의)
  - 제1 신경외과 조현원 원장 (목 디스크 분야 담당)
  - 제2 신경외과 박인석 원장 (허리 디스크 분야 담당)

### 3.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작

- ▶ 무중력 감압 치료기(DRX-3000)
  - 비수술적 치료 장비 ⇒ 미 항공 우주국(NASA)에서 개발
- ▶ 안다바 치료(고주파 자극기)
- ▶ 체외 충격파 치료
- ▶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치료술
- ▶ 경피적 척추 심형술
- ▶ 경피적 고주파 수핵 심형술

### 4. 수술적 치료

- ▶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
- ▶ 내시경 고주파 레이저 디스크 수술
- ▶ 척추 전방 및 후방 고정술

### 5. 척추 재활 운동 치료

- ※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
  - ▶ 의료+과학+운동을 접목한 척추 재활 운동 클리닉 운영
  - ▶ Huber: 척추 근력 강화 운동 치료기 [전신 운동(심부 치료)]
  - ▶ MEDX: 척추 근력 강화 운동 치료기 [전 후 좌 우]
  - ▶ Stylex: 한다리 교정 치료기
  - ▶ 체형 분석기
  - ▶ 체성분 분석기

### 6. 기타 치료 요법

- ▶ 아데노신 핵산 주사요법
- ▶ 태반 주사요법
- ▶ 푸르살타인 주사요법
- ▶ 고용량 비타민 요법
- ▶ 영양 마세랄 요법
- ▶ 성장 호르몬 요법

### 7. 진료시 환자와 오랜 대화를 마다하지 않는다.

- 왜-하면
  - ▶ 정확한 병적양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 ▶ 불필요한 검사 중복처리를 피하기 위하여
  - ▶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1시간정도 상담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 8. 척추 디스크 클리닉에 해당하는 직원 교육, 시설, 장비, 시스템 등 자체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는 병원입니다.

### 9. 병원의 Vision

- ▶ 머리 척추부위 질환에 대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는 병원”을 만들어 제 3의 전성기로 도약하는 것

### 10. 인터넷 검색

네이버 검색창에 **알파신경외과** 를 치시면 알파신경외과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연결됩니다.

진료 및 상담문의 (051)807-0114

**알파신경외과**